

2015-01
고령사회연구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발 간 사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 이슈로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이미 지난 201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인구의 고령화로 초래되는 다양한 문제(예컨대, 노동인구의 감소, 노인빈곤, 의료비용 증가, 세대갈등, 노인여가, 노인 소외와 고독, 노인자살 등)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과 연계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과 실천 계획을 담고 있으나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개선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고, 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고령사회 대응책을 보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는 그동안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주요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어서 금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뿐만 아니라 제주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1. 연구 개괄

○ 연구의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비롯하여 의료비용 증가, 세대 갈등, 노인의 소외와 고독, 돌봄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개인의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제주도는 역사·문화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음. 실제로도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3.6%를 상회하여 국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14).
- 따라서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제주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더불어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도민의 장수와 안녕, 제주 거주환경의 최적화, 제주 관광의 활성화, 은퇴자들의 제주 이주 촉진, 제주 장수이미지의 글로벌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서는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평가와 더불어 이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령친화성 수준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청사진 제시
- WHO(세계보건기구)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분야 연구의 학술적 자료 생성
-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대응과제 발굴을 통한 제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및 핵심문제 도출

○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전략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을 실시함.
-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은 ‘외부환경’,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3대 영역으로 실시함.
- 고령친화도 진단 방법은 2014년도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설문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노인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및 분석을 활용함.

○ 핵심문제 도출

- 외부환경

- 보편적 정주권 보장을 위한 고령화 대응 주택의 보급 확대 및 개량
-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 보장
-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의 보장

- 사회참여 및 일자리

-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부족
- 사회참여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의사결정 참여 기회의 제한
- 노인의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일자리 부족
- 노인일자리와의 한계성

-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서비스

- 노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세대간 통합이 필요
- 정보 전달체계의 미비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수준에 도농간 차이가 있음
- 와상노인 지원의 부족
- 장기요양보험 제공 서비스의 부족
-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3.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의 핵심가치

핵심가치 : 사람 중심, 상생 · 통합, 네트워크, 행복

- 사람 중심

- 노인들은 직업적인 은퇴 및 경제력의 축소로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직·간접적인 배제를 받기 쉬우므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우선시하여 노인과 다른 세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식해야 함.

- 상생 · 통합

- 지역, 계층, 성별, 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아동이나 여성, 장애인, 다문화, 외국인 등 어느 누구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다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생활공동체를 표방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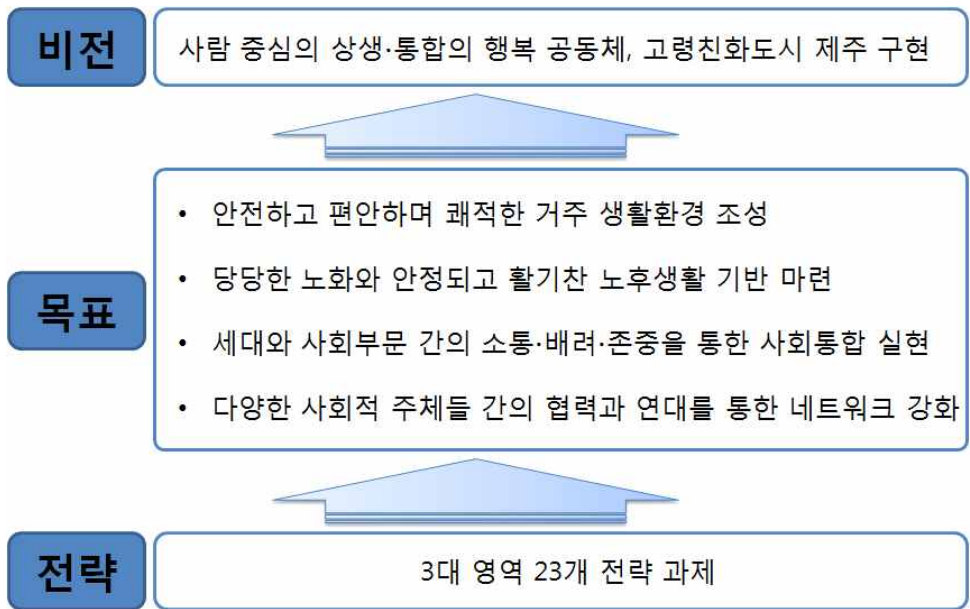
- 네트워크

-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쉽지 않으므로 민간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 및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참여하는 네트워크 체계가 중요함.

- 행복

- 거주자로 하여금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의 비전, 목표



- 제주 고령친화도시는 ‘사람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를 지향하여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임.
- ‘사람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 의미
 -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존중받아야 함.
 - 사람은 누구나 차별과 소외를 당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생활공동체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
- ‘사람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의 성격
 -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경제환경
 - 상생 · 협력 · 통합의 네트워크 환경

- ‘사람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의 조성 방향

- 제주다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 제주미래 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고령친화도시 반영
- 경제 ·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연계
- 지역경쟁력 확장에 기여
-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 도모

○ 분야별 이슈 및 전략과제

- 외부환경

	고령친화도 진단 (ISSUE)	전략과제(INITIATIVE)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age-friendly) 주거환경 구현		
1	주택 내에서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낙상사고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을 확대한다.
2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 고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거의 없다.	고령자를 배려한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3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의 수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다.	주·야간 언제든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4	집 가까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층을 배려한 교통 환경 및 서비스 구축		
5	버스타고 내리기가 불편하고, 차량이 많아 위험하여 외출하기가 어렵다.	대중교통 무장애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6	택시비가 비싸 이용하기에 부담스럽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연번	고령친화도 진단(ISSUE)	전략과제(INITIATIVE)
사회참여 기본 환경 조성		
1	기존 노인여가시설은 접근성과 충분한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 내 기존 시설 확보 등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2	여가프로그램에 있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다양화 전략이 부족하다.	마을 내 이웃 관계 중심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3	소외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사회 참여활동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노인과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노인 취업 지원 및 근로 환경 개선		
4	노인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영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5	농어업 종사자 이 외에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여 노인 취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6	많은 노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만, 근로 환경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7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기회를 찾기 어렵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8	노인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부여되지 않는다.	노인이 고령친화도시정책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고령친화도 진단(ISSUE)	전략과제(INITIATIVE)
고령자의 존중과 지역사회통합 활동 위한 체계 구축		
1	노인에 대한 존중심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가 부족함.	노인의 존중과 배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
2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기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부족함.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 공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3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관련 활동이 미미함.	젊은 세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함.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 수월성과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4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노인들이 소외감 느낌.	정보, 소식의 유형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으로 소외감 해소.
5	노후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미흡함.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함.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서비스의 격차 해소		
6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낌.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함.
7	복지관/경로당 이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갈등 유발.	복지관/경로당 이용 노인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연령 적합형 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보호 수발자의 부담 완화		
8	와상노인의 이동이 어려워 병원진료 등 외출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함.	침대가 설치된 차량의 확대설치 및 수요자의 이용 편의 증대
9	환자의 상태와 수발 기간에 따른 가족 수발자의 물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각함.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발기술 교육, 수발 기간에 따른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 제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 제1단계 (2016년~2020년) : 고령사회 진입단계

- 제1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전략목표는 당당한 노화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노인단체(기관), 노인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다양한 NGO 등의 협의와 협력이 요구됨.
- 아울러 행정의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실무부서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

한 시민사회 부문이 참여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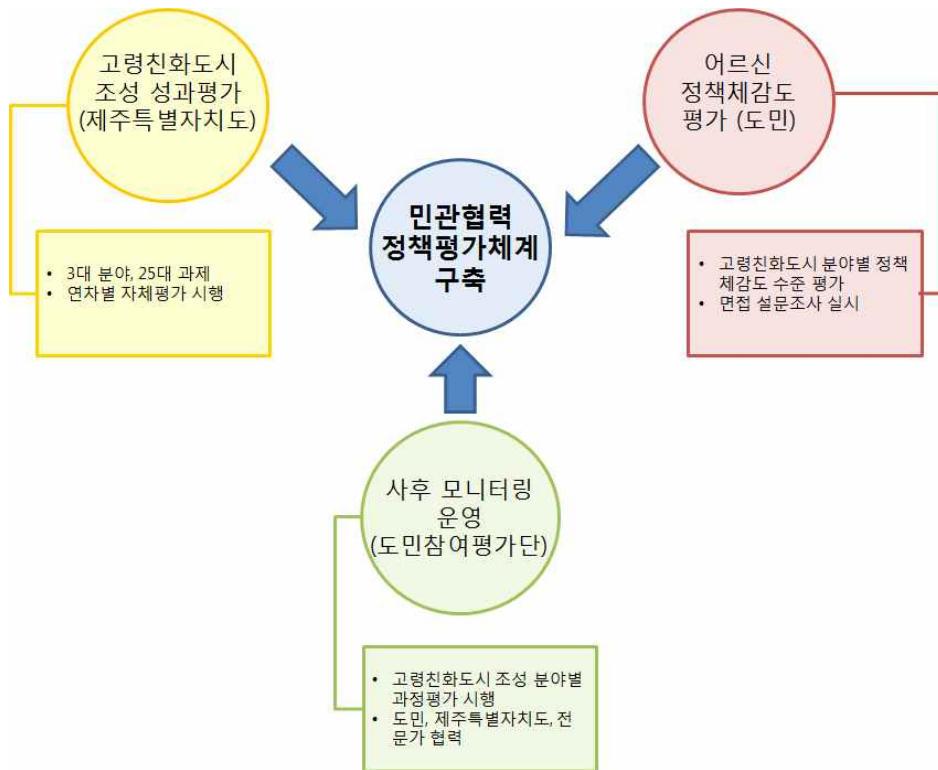
- 제3단계 (2026년~2030년) : 초고령사회 진입 단계

- 제3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전략목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령친화도시를 확립하는 단계임.
- 3단계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안정화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임.
- 전국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친화도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고, 나아가 고령친화도시를 더욱 고도화시켜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연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사업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의 연계성이 없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도민 밀착형 평가체계 도입
 - 기존의 평가체계는 평가의 현실 적합성과 효과성, 도민의 고령친화 체감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

제주 고령친화도시 평가체계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2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4
제1절. 지리통계자료로 본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주거현황	4
제2절.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분석	11
1. 일반 특성	11
2.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13
3.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19
4.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27
제3절.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37
1. 조사 개요	37
2.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38
제3장. 고령친화도 진단을 통한 핵심문제 도출	58
제1절.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58
제2절.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68
제3절.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75

제4장. 제주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구상	90
제1절.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91
1. 핵심가치 : 사람 중심, 상생·통합, 네트워크, 행복	91
2. 비전(Vision)	93
3. 제주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94
제2절. 분야별 이슈 및 전략과제	96
1.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96
2.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106
3.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120
제5장.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및 향후 계획	133
1. 단계별 추진전략	133
2. 향후 추진계획	139
제6장. 결 론	142
참고자료	149

표 목 차

<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8
<표 2-2> 노인의 일반 특성	12
<표 2-3> 집에서 버스/지하철역까지 소요 시간	14
<표 2-4>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까지 소요 시간	14
<표 2-5> 노인복지관까지 소요 시간	15
<표 2-6> 읍면동사무소까지 소요 시간	15
<표 2-7> 의료기관까지 소요 시간	16
<표 2-8> 일상용품 구매 장소까지 소요 시간	16
<표 2-9> 현재 운전 여부	17
<표 2-10>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8
<표 2-11> 주거형태	18
<표 2-12> 주택 내 가장 불편한 공간	19
<표 2-13>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여부	20
<표 2-14> 지난 2년간 참여한 여가문화활동(1순위)	20
<표 2-15>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여부	21
<표 2-16> 향후 학습활동 희망 여부	21
<표 2-17> 향후 취미여가활동 희망 여부	22
<표 2-18> 향후 종교활동 희망 여부	22
<표 2-19> 향후 친목단체활동 희망 여부	23
<표 2-20> 향후 정치사회활동 희망 여부	23
<표 2-21>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24
<표 2-22>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만족도	24
<표 2-23> 현재 근로 여부	25
<표 2-24> 현재 근로 이유	25

<표 2-25> 향후 소득활동 희망 여부	26
<표 2-26> 향후 근로희망 이유	27
<표 2-27> 일상생활 차별경험	28
<표 2-28> 자주 경험하는 차별 경험	28
<표 2-29>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도	29
<표 2-30> 휴대폰 소유 여부	29
<표 2-31>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 개수	30
<표 2-32>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알)의 개수	30
<표 2-33> 평소 운동 여부	31
<표 2-34> 영양관리 (음식의 양, 종류 조절)	31
<표 2-35> 구강 상태에 따른 음식섭취 어려움	32
<표 2-36> 지난 2년 간 건강검진 여부	32
<표 2-37> 지난 1년 간 병의원 진료 못 받은 경험	33
<표 2-38> 지난 1년 간 치과 진료 못 받은 경험	33
<표 2-39> 일상생활 수행에서 타인의 도움 여부	34
<표 2-40> 도움의 주체가 가족인 경우	34
<표 2-41> 도움의 주체가 친척, 이웃, 친구인 경우	35
<표 2-42> 도움의 주체가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인 경우	35
<표 2-43> 도움의 주체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인 경우	36
<표 2-44> 도움의 주체가 노인돌봄 서비스 등	36
<표 2-45> 고령친화도 조사를 위한 연구 설계	38
<표 2-46> 옥외환경과 건물	39
<표 2-47> 교통 환경	42
<표 2-48> 주거환경	45
<표 2-49> 사회참여	49
<표 2-50> 시민참여 및 일자리	50
<표 2-51> 존중과 사회통합	52

<표 2-52>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54
<표 2-53>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56
<표 3-1>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핵심문제	58
<표 3-2> 사회참여 핵심문제	68
<표 3-3>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지역사회서비스 핵심문제	76

그 림 목 차

<그림 2-1> 65-69세 고령자 분포현황	4
<그림 2-2> 70-74세 고령자 분포현황	5
<그림 2-3> 75-79세 고령자분포현황	5
<그림 2-4> 80-84세 고령자분포현황	6
<그림 2-5> 85세 이상 고령자분포현황	6
<그림 2-6> 제주지역의 노령화지수	9
<그림 2-7> 제주지역의 노년부양비	10
<그림 3-1> 지능형 의료시설 구비주택(Smart Medical Home)	61
<그림 3-2> Universal Design(UD)의 원칙	62
<그림 3-3> 설비측면에서의 정비사례	64
<그림 3-4> 비설비 측면에서의 정비사례	65
<그림 3-5> 목욕탕 시설의 보행권(원의 반경500m) 권역 범위현황	67
<그림 4-1> 제주 고령친화도시 비전, 목표 및 전략 체계도	95
<그림 4-2>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조감도	101
<그림 4-3> 전국 최초 고령자 맞춤형 아파트(서울시 세곡동)	102
<그림 4-4>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 반영 전후의 건축물 계획	103
<그림 4-5> 무장애(barrier-free) 시설	105
<그림 4-6>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	106
<그림 5-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도	138
<그림 5-2>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체계도	138
<그림 5-3>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단계별 도식도	139
<그림 5-4> 제주 고령친화도시 평가체계	141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비롯하여 의료비용 증가, 세대 갈등, 노인의 소외와 고독, 돌봄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제주도는 역사·문화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왔음. 실제로도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3.6%를 상회하여 국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14).
- 따라서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제주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시”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더불어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도민의 장수와 안녕, 제주 거주환경의 최적화, 제주 관광의 활성화, 은퇴 후 이주 촉진, 제주 장수이미지의 글로벌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WHO(세계보건기구)의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평가와 더불어 이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령친화성 수준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2. 연구목적

- 첫째, WHO(세계보건기구)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생성하여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마련함.
- 둘째,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 내용을 기초로 고령친화도 세부 영역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각 영역의 중장기 비전과 대응과제를 제시함.
- 셋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정책방안을 모색함.

3. 연구방법

- 문헌조사에 의한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심층면접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수렴

4. 주요 연구내용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정도 분석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조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실시
- 고령자 및 부양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주요 이슈 발굴

-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정책 개발

5.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청사진 제시
- WHO(세계보건기구)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분야 연구의 학술적 자료 생성
-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대응과제 발굴을 통한 제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제2장.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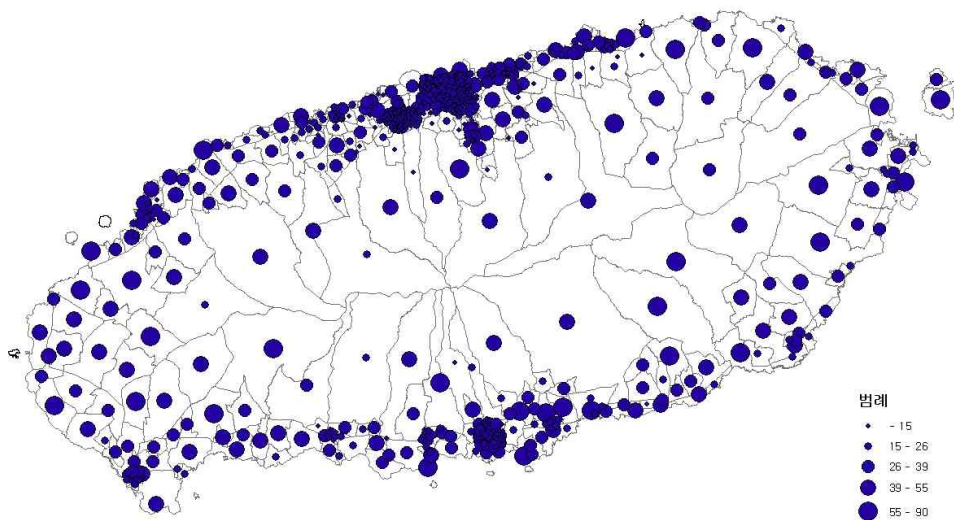
제1절. 지리통계자료로 본 제주지역 고령인구의 주거현황

1. 지역적 분포 및 주거특징

가. 제주지역별 고령인구 분포 특징

-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SGIS(통계지리정보)는 인구, 주택, 산업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와 연계되어 있어서 제주도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한 통계자료라 할 수 있음.
-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노년 부양비, 노령화지수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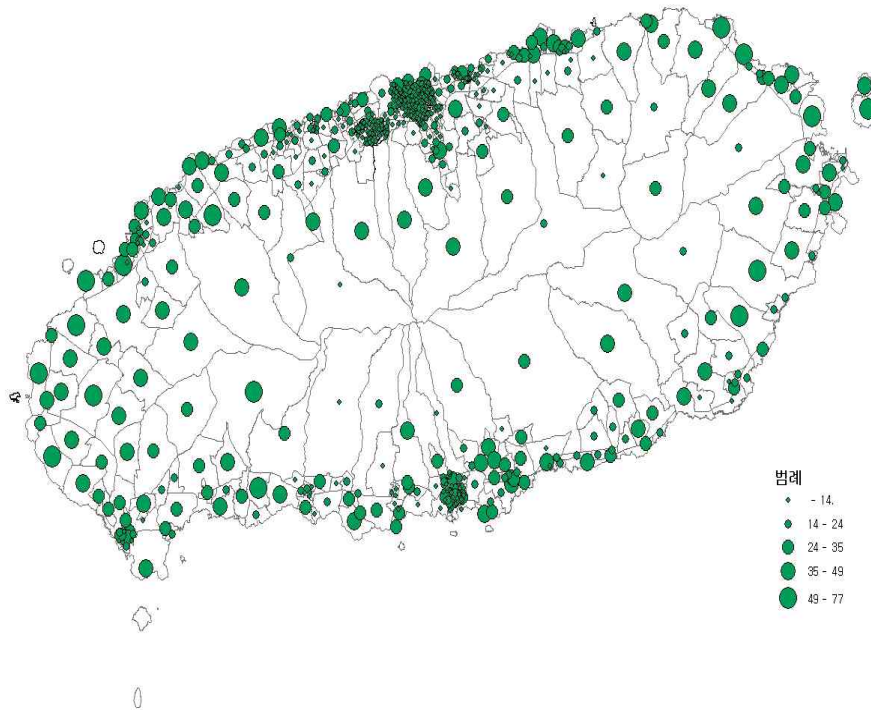
〈그림 2-1〉 65-69세 고령자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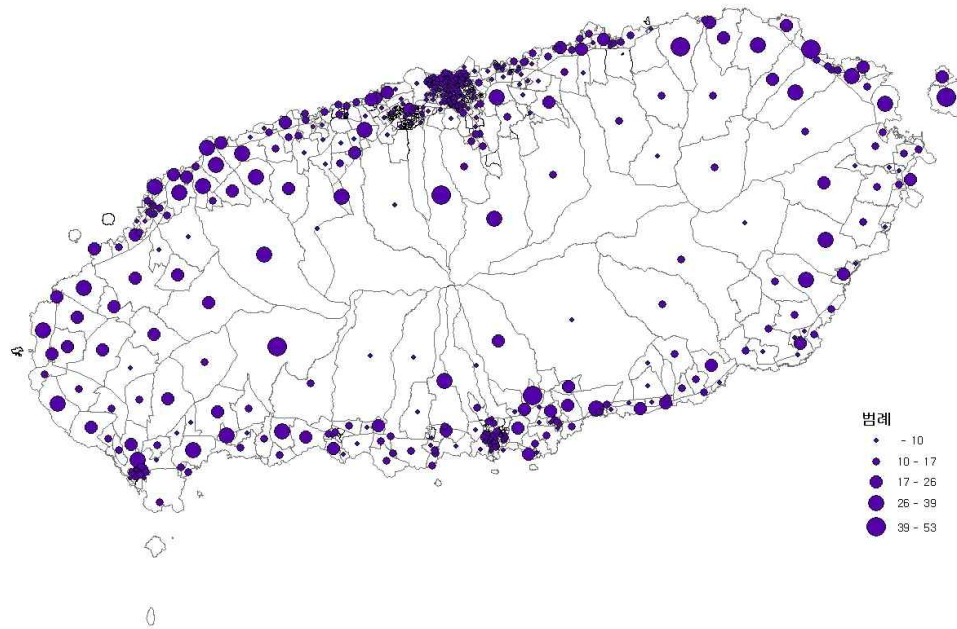
〈그림 2-2〉 70-74세 고령자 분포현황



〈그림 2-3〉 75-79세 고령자분포현황



〈그림 2-4〉 80-84세 고령자분포현황



〈그림 2-5〉 85세 이상 고령자분포현황



- 65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거주지역의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권, 농촌지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령자의 거주분포가 넓게 나타남.
- 60대와 70대의 경우 서쪽지역에 거주분포가 넓게 나타남.
- 80대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후기고령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에 비해 조사집계구별 고령자 거주인구수는 적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령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생활 및 공간구조에 적합한 고령자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나. 지역별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 제주지역의 아동인구, 생산인구와 고령인구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를 중심으로 인구분포의 특징을 파악하였음(통계청, 2014).
- 2015년 제주지역의 노령화지수는 87.5%이며, 2018년에는 101.3%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르게 되고, 이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2003년 41.3%, 2004년 44.1%, 2005년 47.3%, 2006년 51.0%, 2007년 55.1%, 2008년 59.3%, 2009년 63.6%, 2010년 67.7%, 2011년 72.4%, 2012년 77.7%를 기록하고 있음.
- 앞서 연령대별 고령자의 거주분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6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고령인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
1990	8.7	23.4	11.5
2000	12.0	36.1	8.4
2010	18.4	66.0	5.4
2015	20.5	87.5	4.9
2018	22.1	101.3	4.5
2020	24.0	111.4	4.2
2022	32.9	152.6	3.0
2030	40.4	182.8	2.5
2040	62.8	277.9	1.6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1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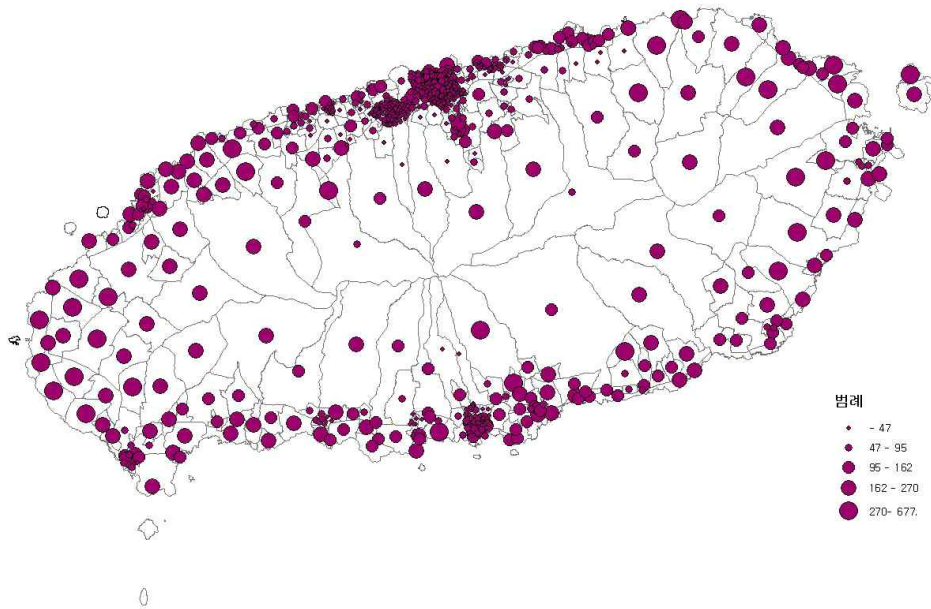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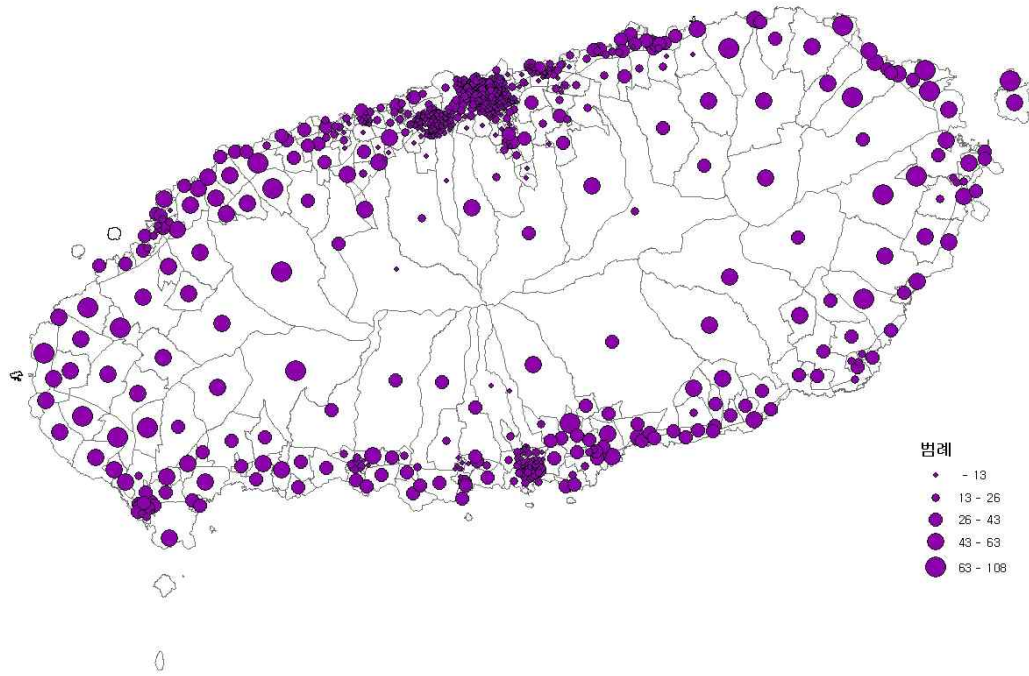
- 제주지역의 노령화지수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동쪽과 서쪽지역의 노령화지수가 상당히 높고 중산간 지역에서의 노령화지수도 높게 나타남.

〈그림 2-6〉 제주지역의 노령화지수



- 제주지역의 노년부양비는 2000년 12.0명, 2010년 18.4명, 2015년 20.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62.8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동쪽지역과 서쪽지역,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노년부양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0-14세 아동인구뿐만 아니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감소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림 2-7〉 제주지역의 노년부양비



제2절.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¹⁾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반 특성

- 제주지역 노인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42.5%, 여성 57.5%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 특히 고령자일수록 여성의 성비가 높아지고 있어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 노인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동지역)에 사는 응답자가 71명(59.2%),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9명(40.8%)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노인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노인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66명(5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독거노인인 경우가 25명(20.5%)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끼리 살거나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 노인실태조사는 한국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노인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매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함.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거주 현황,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와 건강행위,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경제 활동, 여가 활동과 사회활동, 생활 환경, 안전 실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있음. 노인실태조사는 전국의 표본을 추출한 자료이나 제주의 표본은 약 100여 명 정도로 그 수가 적어 제주노인 전체의 특성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둠.

〈표 2-2〉 노인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

	연령(세) 특성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전체
성별	남	19(48.7)	15(44.1)	11(40.7)	5(27.8)	1(50)	51(42.5)
	여	20(51.3)	19(55.9)	16(59.3)	13(72.2)	1(50)	69(57.5)
	전체	39(100)	34(100)	27(100)	18(100)	2(100)	120(100)
거주 지역	동	24(63.2)	22(64.7)	15(57.7)	8(42.1)	2(66.7)	71(59.2)
	읍면	14(36.8)	12(35.3)	11(42.3)	11(57.9)	1(33.3)	49(40.8)
	전체	38(100)	34(100)	26(100)	19(100)	3(100)	120(100)
가족 구조	노인독신	4(10.3)	6(17.1)	8(30.8)	6(31.6)	1(33.3)	25(20.5)
	노인부부	21(53.8)	20(57.1)	12(46.2)	11(57.9)	2(66.7)	66(54.1)
	자녀동거	13(33.3)	8(22.9)	4(15.4)	2(10.5)	0(0)	27(22.1)
	노인부모 및 손자녀동거	1(2.6)	1(2.9)	2(7.7)	0(0)	0(0)	4(3.3)
	전체	39(100)	35(100)	26(100)	19(100)	3(100)	122(100)
결혼 상태	유배우(기혼)	32(84.2)	25(73.5)	15(57.7)	11(57.9)	2(66.7)	85(70.8)
	사별(기혼)	5(13.2)	8(23.5)	11(42.3)	8(42.1)	1(33.3)	33(27.5)
	이혼(기혼)	1(2.6)	0(0)	0(0)	0(0)	0(0)	1(0.8)
	별거(기혼)	0(0)	1(2.9)	0(0)	0(0)	0(0)	1(0.8)
	전체	38(100)	34(100)	26(100)	19(100)	3(100)	120(100)
학력	무학(글자모름)	1(2.6)	2(5.7)	4(15.4)	5(27.8)	0(0)	12(10.1)
	무학(글자해독)	7(18.4)	10(28.6)	8(30.8)	8(44.4)	0(0)	33(27.7)
	초등학교	14(36.8)	11(31.4)	4(15.4)	4(22.2)	2(100)	35(29.4)
	중학교	5(13.2)	5(14.3)	6(23.1)	0(0)	0(0)	16(13.4)
	고등학교	7(18.4)	6(17.1)	2(7.7)	1(5.6)	0(0)	16(13.4)
	대학(4년미만)	1(2.6)	0(0)	1(3.8)	0(0)	0(0)	2(1.7)
	대학교 이상	3(7.9)	1(2.9)	1(3.8)	0(0)	0(0)	5(4.2)
	전체	38(100)	35(100)	26(100)	18(100)	2(100)	119(100)

〈표 2-2〉 노인의 일반 특성 (계속)

(단위 : 명, %)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전체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2(5.4)	1(2.9)	0(0)	0(0)	0(0)	3(2.6)
	건강한 편이다	14(37.8)	11(32.4)	5(19.2)	4(25)	0(0)	34(29.3)
	그저 그렇다	6(16.2)	7(20.6)	4(15.4)	3(18.8)	0(0)	20(17.2)
	건강이 나쁜 편이다	14(37.8)	14(41.2)	14(53.8)	8(50)	2(66.7)	52(44.8)
	건강이 매우 나쁘다	1(2.7)	1(2.9)	3(11.5)	1(6.3)	1(33.3)	7(6)
	전체	37(100)	34(100)	26(100)	16(100)	3(100)	116(100)

-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0.8%인 85명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 노인의 학력을 살펴보면, 66% 이상의 노인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음.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이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52명(44.8%)으로 가장 많았음. ‘매우 건강하다’, 혹은 ‘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34명(31.9%)으로 저조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가. 외부환경

- 집에서 버스/지하철역까지 소요 시간은 ‘걸어서 5분 ~ 1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55.8%),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26명(21.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표 2-3〉 집에서 버스/지하철역까지 소요 시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전체
65-69	7(17.9)	26(66.7)	5(12.8)	1(2.6)	39(100)
70-74	6(18.2)	19(57.6)	7(21.2)	1(3)	33(100)
75-79	4(14.8)	15(55.6)	7(25.9)	1(3.7)	27(100)
80-84	3(16.7)	7(38.9)	5(27.8)	3(16.7)	18(100)
85이상	0(0)	0(0)	2(66.7)	1(33.3)	3(100)
전체	20(16.7)	67(55.8)	26(21.7)	7(5.8)	120(100)

- 걸어서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까지 소요 시간에 대해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79명(65.3%)로 가장 많았음.

〈표 2-4〉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까지 소요 시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전체
65-69	5(12.8)	3(7.7)	6(15.4)	25(64.1)	39(100)
70-74	3(8.6)	5(14.3)	5(14.3)	22(62.9)	35(100)
75-79	3(11.5)	3(11.5)	4(15.4)	16(61.5)	26(100)
80-84	2(10.5)	2(10.5)	1(5.3)	14(73.7)	19(100)
85이상	0(0)	0(0)	0(0)	2(100)	2(100)
전체	13(10.7)	13(10.7)	16(13.2)	79(65.3)	121(100)

- 걸어서 노인복지관까지 소요 시간은 ‘30분 이상’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분~1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24.2%로 그 다음을 차지함.

〈표 2-5〉 노인복지관까지 소요 시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전체
65-69	1(2.6)	11(28.9)	7(18.4)	19(50)	38(100)
70-74	2(5.9)	10(29.4)	6(17.6)	16(47.1)	34(100)
75-79	1(3.8)	5(19.2)	3(11.5)	17(65.4)	26(100)
80-84	2(10.5)	2(10.5)	3(15.8)	12(63.2)	19(100)
85이상	0(0)	1(33.3)	1(33.3)	1(33.3)	3(100)
전체	6(5)	29(24.2)	20(16.7)	65(54.2)	120(100)

- 걸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소요 시간 역시 ‘걸어서 30분 이상’이 63.1%로 가장 많았고, ‘10분~30분 미만’이 23.8%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10분 이상 걸어가야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읍면동사무소까지 소요 시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전체
65-69	1(2.6)	4(10.3)	10(25.6)	24(61.5)	39(100)
70-74	2(5.7)	3(8.6)	10(28.6)	20(57.1)	35(100)
75-79	1(3.7)	3(11.1)	5(18.5)	18(66.7)	27(100)
80-84	1(5.6)	1(5.6)	3(16.7)	13(72.2)	18(100)
85이상	0(0)	0(0)	1(33.3)	2(66.7)	3(100)
전체	5(4.1)	11(9)	29(23.8)	77(63.1)	122(100)

- 조사응답 노인들이 의료기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보행시간은 ‘30분 이상’이 49.6%, ‘10분~30분 미만’이 36.4%로 나타남.

〈표 2-7〉 의료기관까지 소요 시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전체
65-69	0(0)	5(13.2)	18(47.4)	15(39.5)	38(100)
70-74	1(2.9)	6(17.1)	12(34.3)	16(45.7)	35(100)
75-79	0(0)	1(3.8)	10(38.5)	15(57.7)	26(100)
80-84	1(5.3)	2(10.5)	3(15.8)	13(68.4)	19(100)
85이상	1(33.3)	0(0)	1(33.3)	1(33.3)	3(100)
전체	3(2.5)	14(11.6)	44(36.4)	60(49.6)	121(100)

- 일상용품 구매장소까지 걸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상 10분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25.4%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상용품 구매장소까지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음.

〈표 2-8〉 일상용품 구매 장소까지 소요 시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전체
65-69	5(12.8)	21(53.8)	11(28.2)	2(5.1)	39(100)
70-74	9(25.7)	16(45.7)	8(22.9)	2(5.7)	35(100)
75-79	5(18.5)	12(44.4)	7(25.9)	3(11.1)	27(100)
80-84	3(16.7)	7(38.9)	4(22.2)	4(22.2)	18(100)
85이상	1(33.3)	0(0)	1(33.3)	1(33.3)	3(100)
전체	23(18.9)	56(45.9)	31(25.4)	12(9.8)	122(100)

나. 교통

- ‘운전은 평생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71.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응답 노인들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2-9 참고).
- 그러나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들이 23.3%로 나타났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운전을 하는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과 노인의 운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이 요구됨.

〈표 2-9〉 현재 운전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현재 한다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한 적이 없다	전체
65-69	17(43.6)	1(2.6)	21(53.8)	39(100)
70-74	9(26.5)	2(5.9)	23(67.6)	34(100)
75-79	2(7.7)	2(7.7)	22(84.6)	26(100)
80-84	0(0)	1(5.6)	17(94.4)	18(100)
85이상	0(0)	0(0)	3(100)	3(100)
전체	28(23.3)	6(5)	86(71.7)	120(100)

-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47.5%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이 38.3%로 그 다음을 차지함(표 2-10 참고).

〈표 2-10〉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전체
65-69	12(31.6)	0(0)	21(55.3)	1(2.6)	4(10.5)	0(0)	38(100)
70-74	17(48.6)	1(2.9)	14(40)	1(2.9)	2(5.7)	0(0)	35(100)
75-79	17(65.4)	1(3.8)	6(23.1)	1(3.8)	1(3.8)	0(0)	26(100)
80-84	10(58.8)	1(5.9)	4(23.5)	1(5.9)	1(5.9)	0(0)	17(100)
85이상	1(25)	1(25)	1(25)	0(0)	1(25)	0(0)	4(100)
전체	57(47.5)	4(3.3)	46(38.3)	4(3.3)	9(7.5)	0(0)	120(100)

다. 주거환경

○ 응답자의 69.4%(84명)가 자가 소유의 주거지에 거주함.

〈표 2-11〉 주거형태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 세)	무상	전체
65-69	32(82.1)	0(0)	4(10.3)	2(5.1)	1(2.6)	39(100)
70-74	25(71.4)	0(0)	2(5.7)	3(8.6)	5(14.3)	35(100)
75-79	16(61.5)	0(0)	0(0)	1(3.8)	9(34.6)	26(100)
80-84	10(55.6)	0(0)	0(0)	1(5.6)	7(38.9)	18(100)
85이상	1(33.3)	0(0)	0(0)	1(33.3)	1(33.3)	3(100)
전체	84(69.4)	0(0)	6(5.0)	8(6.6)	23(19.0)	121(100)

○ 주택 내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에 대해 응답자의 66.4%는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응답함.

- ‘화장실 및 욕실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29.3%, ‘부엌 및 식당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2.6%로, 전체 응답 노인의 1/3 정도가 화장실 및 욕실이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2-12〉 주택 내 가장 불편한 공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없음	현관 및 복도	계단	화장실 및 욕실	침실 및 거실	문턱	부엌 및 식당	전체
65-69	28(75.7)	0(0)	0(0)	9(24.3)	0(0)	0(0)	0(0)	37(100)
70-74	23(67.6)	0(0)	0(0)	10(29.4)	0(0)	0(0)	1(2.9)	34(100)
75-79	16(61.5)	1(3.8)	1(3.8)	7(26.9)	0(0)	0(0)	1(3.8)	26(100)
80-84	9(56.3)	0(0)	0(0)	6(37.5)	0(0)	0(0)	1(6.3)	16(100)
85이상	1(33.3)	0(0)	0(0)	2(66.7)	0(0)	0(0)	0(0)	3(100)
전체	77(66.4)	1(0.9)	1(0.9)	34(29.3)	0(0)	0(0)	3(2.6)	116(100)

3.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가. 사회참여

- 조사대상 전체 노인들이 지난 1년 간 여가문화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노인들이 참여한 여가문화활동이 TV시청(89.3%)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여가문화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활동 없이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3〉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예	아니오	전체
65-69	39(100)	0(0)	39(100)
70-74	34(100)	0(0)	34(100)
75-79	26(100)	0(0)	26(100)
80-84	18(100)	0(0)	18(100)
85이상	3(100)	0(0)	3(100)
전체	120(100)	0(0)	120(100)

〈표 2-14〉 지난 2년간 참여한 여가문화활동(1순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문화예술 참여활동 (악기연 주, 미술 등)	스포츠 참여활동	취미오락 활동	TV시청	휴식활동	그 외 사회활동	전체
65-69	1(2.5)	1(2.5)	2(5)	34(85)	1(2.5)	1(2.5)	40(100)
70-74	0(0)	0(0)	2(5.9)	31(91.2)	1(2.9)	0(0)	34(100)
75-79	0(0)	0(0)	2(7.4)	24(88.9)	1(3.7)	0(0)	27(100)
80-84	0(0)	0(0)	0(0)	17(94.4)	1(5.6)	0(0)	18(100)
85이상	0(0)	0(0)	0(0)	3(100)	0(0)	0(0)	3(100)
전체	1(0.8)	1(0.8)	6(4.9)	109(89.3)	4(3.3)	1(0.8)	122(100)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6%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2-15〉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2(5.1)	4(10.3)	12(30.8)	18(46.2)	3(7.7)	39(100)
70-74	0(0)	2(5.9)	6(17.6)	19(55.9)	7(20.6)	34(100)
75-79	0(0)	0(0)	5(18.5)	16(59.3)	6(22.2)	27(100)
80-84	0(0)	0(0)	3(17.6)	11(64.7)	3(17.6)	17(100)
85이상	0(0)	0(0)	0(0)	2(100)	0(0)	2(100)
전체	2(1.7)	6(5)	26(21.8)	66(55.5)	19(16)	119(100)

- 향후 학습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별로 할 생각이 없음’이나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응답 노인의 77.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조사응답자들이 향후 학습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6〉 향후 학습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2(5.1)	5(12.8)	4(10.3)	22(56.4)	6(15.4)	39(100)
70-74	1(2.9)	4(11.8)	2(5.9)	17(50)	10(29.4)	34(100)
75-79	1(3.7)	3(11.1)	3(11.1)	13(48.1)	7(25.9)	27(100)
80-84	0(0)	1(6.3)	1(6.3)	9(56.3)	5(31.3)	16(100)
85이상	0(0)	0(0)	0(0)	1(50)	1(50)	2(100)
전체	4(3.4)	13(11)	10(8.5)	62(52.5)	29(24.6)	118(100)

- 향후 취미여가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하고 싶음’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7.5%,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44.2%,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27.5%로, 총 79.2%의 응답노인이 향후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여가활동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표 2-17〉 향후 취미여가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3(7.9)	20(52.6)	10(26.3)	5(13.2)	0(0)	38(100)
70-74	2(5.7)	15(42.9)	11(31.4)	6(17.1)	1(2.9)	35(100)
75-79	3(11.1)	13(48.1)	6(22.2)	4(14.8)	1(3.7)	27(100)
80-84	1(5.9)	4(23.5)	6(35.3)	5(29.4)	1(5.9)	17(100)
85이상	0(0)	1(33.3)	0(0)	2(66.7)	0(0)	3(100)
전체	9(7.5)	53(44.2)	33(27.5)	22(18.3)	3(2.5)	120(100)

○ 향후 종교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35.3%가 ‘별로 할 생각이 없음’, 15.1%가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향후 종교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8〉 향후 종교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3(7.9)	11(28.9)	5(13.2)	15(39.5)	4(10.5)	38(100)
70-74	3(8.8)	12(35.3)	4(11.8)	9(26.5)	6(17.6)	34(100)
75-79	4(14.3)	7(25)	3(10.7)	10(35.7)	4(14.3)	28(100)
80-84	1(5.9)	4(23.5)	1(5.9)	7(41.2)	4(23.5)	17(100)
85이상	0(0)	1(50)	0(0)	1(50)	0(0)	2(100)
전체	11(9.2)	35(29.4)	13(10.9)	42(35.3)	18(15.1)	119(100)

- 향후 친목단체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별로 할 생각이 없음’이나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3%, 5.9%로 절반 이상의 응답 노인이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표 2-19 참고).

〈표 2-19〉 향후 친목단체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7(17.9)	16(41)	3(7.7)	13(33.3)	0(0)	39(100)
70-74	4(11.4)	8(22.9)	5(14.3)	15(42.9)	3(8.6)	35(100)
75-79	1(3.8)	4(15.4)	3(11.5)	15(57.7)	3(11.5)	26(100)
80-84	0(0)	1(6.7)	2(13.3)	11(73.3)	1(6.7)	15(100)
85이상	0(0)	0(0)	0(0)	3(100)	0(0)	3(100)
전체	12(10.2)	29(24.6)	13(11)	57(48.3)	7(5.9)	118(100)

- 향후 학습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별로 할 생각이 없음’이나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2%, 54.2%로 거의 대부분의 조사 응답자가 향후 정치사회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0〉 향후 정치사회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1(2.6)	1(2.6)	1(2.6)	19(48.7)	17(43.6)	39(100)
70-74	0(0)	0(0)	0(0)	14(41.2)	20(58.8)	34(100)
75-79	0(0)	0(0)	0(0)	10(38.5)	16(61.5)	26(100)
80-84	0(0)	0(0)	0(0)	7(43.8)	9(56.3)	16(100)
85이상	0(0)	0(0)	0(0)	1(33.3)	2(66.7)	3(100)
전체	1(0.8)	1(0.8)	1(0.8)	51(43.2)	64(54.2)	118(100)

- 현재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함’ 28%, ‘그저 그렇다’ 33.9%, ‘만족하지 않음’ 33.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2-21〉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매우 만족함	만족함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전체
65-69	2(5.1)	13(33.3)	14(35.9)	10(25.6)	0(0)	39(100)
70-74	1(2.9)	9(26.5)	11(32.4)	12(35.3)	1(2.9)	34(100)
75-79	1(3.8)	7(26.9)	9(34.6)	9(34.6)	0(0)	26(100)
80-84	0(0)	3(18.8)	6(37.5)	7(43.8)	0(0)	16(100)
85이상	0(0)	1(33.3)	0(0)	2(66.7)	0(0)	3(100)
전체	4(3.4)	33(28)	40(33.9)	40(33.9)	1(0.8)	118(100)

-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 ‘만족함’이 각각 11.3%, 51.3%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매우 만족함	만족함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전체
65-69	6(15.8)	21(55.3)	9(23.7)	2(5.3)	0(0)	38(100)
70-74	3(8.8)	17(50)	8(23.5)	5(14.7)	1(2.9)	34(100)
75-79	3(12)	12(48)	8(32)	2(8)	0(0)	25(100)
80-84	1(6.7)	8(53.3)	4(26.7)	2(13.3)	0(0)	15(100)
85이상	0(0)	1(33.3)	1(33.3)	1(33.3)	0(0)	3(100)
전체	13(11.3)	59(51.3)	30(26.1)	12(10.4)	1(0.9)	115(100)

나. 일자리

- 조사대상 노인들의 현재 근로 여부는 ‘현재 일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0.8%이고,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가 45.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표 2-23〉 현재 근로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현재 일한다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전체
65-69	25(64.1)	12(30.8)	2(5.1)	39(100)
70-74	19(55.9)	14(41.2)	1(2.9)	34(100)
75-79	10(37)	16(59.3)	1(3.7)	27(100)
80-84	7(36.8)	12(63.2)	0(0)	19(100)
85이상	1(33.3)	2(66.7)	0(0)	3(100)
전체	62(50.8)	56(45.9)	4(3.3)	122(100)

- 현재의 근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88.5%로, 노인세대의 경제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음.

〈표 2-24〉 현재 근로 이유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생계비 마련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체
65-69	22(88)	3(12)	0(0)	0(0)	25(100)
70-74	17(89.5)	1(5.3)	1(5.3)	0(0)	19(100)
75-79	10(100)	0(0)	0(0)	0(0)	10(100)
80-84	5(71.4)	2(28.6)	0(0)	0(0)	7(100)
85이상	0(0)	0(0)	0(0)	0(0)	0(0)
전체	54(88.5)	6(9.8)	1(1.6)	0(0)	61(100)

- 향후 소득활동 희망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이 각각 10.3%, 34.2%, 8.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노인이 향후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0세~69세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55.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반면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이 총 47%로, 소득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25〉 향후 소득활동 희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반드시 하고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전체
65-69	6(15.8)	15(39.5)	4(10.5)	12(31.6)	1(2.6)	38(100)
70-74	3(8.8)	12(35.3)	3(8.8)	13(38.2)	3(8.8)	34(100)
75-79	2(8)	8(32)	1(4)	12(48)	2(8)	25(100)
80-84	1(6.3)	4(25)	2(12.5)	7(43.8)	2(12.5)	16(100)
85이상	0(0)	1(25)	0(0)	2(50)	1(25)	4(100)
전체	12(10.3)	40(34.2)	10(8.5)	46(39.3)	9(7.7)	117(100)

- 향후 근로희망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아 노년기의 생계비 마련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음.

〈표 2-26〉 향후 근로희망 이유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생계비 마련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전체
65-69	22(81.5)	3(11.1)	1(3.7)	1(3.7)	27(100)
70-74	14(77.8)	2(11.1)	1(5.6)	1(5.6)	18(100)
75-79	10(90.9)	1(9.1)	0(0)	0(0)	11(100)
80-84	5(71.4)	2(28.6)	0(0)	0(0)	7(100)
85이상	0(0)	0(0)	0(0)	0(0)	0(0)
전체	51(81)	8(12.7)	2(3.2)	2(3.2)	63(100)

4.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가. 존중 및 사회통합

-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97.5%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자주 경험하는 차별 역시 ‘해당 없음’이 98.3%로 가장 높게 나와 설문 결과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일상생활 차별경험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예	아니오	전체
65-69	0(0)	38(100)	38(100)
70-74	1(2.9)	33(97.1)	34(100)
75-79	2(7.4)	25(92.6)	27(100)
80-84	0(0)	16(100)	16(100)
85이상	0(0)	3(100)	3(100)
전체	3(2.5)	115(97.5)	118(100)

〈표 2-28〉 자주 경험하는 차별 경험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식당, 커피숍 이용 시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 시	의료시설 이용 시	기타	해당없음	전체
65-69	0(0)	0(0)	0(0)	0(0)	0(0)	38(100)	38(100)
70-74	1(2.9)	0(0)	0(0)	0(0)	0(0)	33(97.1)	34(100)
75-79	0(0)	0(0)	0(0)	1(3.8)	0(0)	25(96.2)	26(100)
80-84	0(0)	0(0)	0(0)	0(0)	0(0)	18(100)	18(100)
85이상	0(0)	0(0)	0(0)	0(0)	0(0)	3(100)	3(100)
전체	1(0.8)	0(0)	0(0)	1(0.8)	0(0)	117(98.3)	119(100)

나.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도는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9〉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도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전체
65-69	1(2.6)	6(15.4)	2(5.1)	30(76.9)	39(100)
70-74	0(0)	3(8.8)	2(5.9)	29(85.3)	34(100)
75-79	0(0)	2(7.7)	1(3.8)	23(88.5)	26(100)
80-84	0(0)	0(0)	0(0)	16(100)	16(100)
85이상	0(0)	0(0)	0(0)	3(100)	3(100)
전체	1(0.8)	11(9.3)	5(4.2)	101(85.6)	118(100)

- 휴대폰 소유 여부를 알아보면, 조사응답 전체 노인의 5.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 69.4%로, 70% 이상의 많은 노인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0〉 휴대폰 소유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스마트폰이 있다	일반 휴대폰이 있다	갖고 있지 않다	전체
65-69	5(12.8)	29(74.4)	5(12.8)	39(100)
70-74	1(2.9)	26(76.5)	7(20.6)	34(100)
75-79	1(3.7)	18(66.7)	8(29.6)	27(100)
80-84	0(0)	9(50)	9(50)	18(100)
85이상	0(0)	2(66.7)	1(33.3)	3(100)
전체	7(5.8)	84(69.4)	30(24.8)	121(100)

다. 지역사회와 건강서비스

- 조사응답 노인들이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개수는 평균 3.2개이고, 응답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환 개수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평균개수	표준편차	인원(명)
65-69	2.6	1.6	39
70-74	3.1	1.9	34
75-79	3.8	2.0	27
80-84	3.4	2.0	18
85이상	5.9	2.9	3
합계	3.2	2.0	121

- 조사응답 노인들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알)의 개수는 평균 4.4개임.

〈표 2-32〉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알)의 개수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평균개수	표준편차	인원(명)
65-69	3.0	3.9	39
70-74	4.6	4.7	34
75-79	5.3	6.2	27
80-84	5.0	5.5	18
85이상	6.9	5.0	3
합계	4.4	5.0	121

- 노인들이 평소 운동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노인이 48%, ‘아니오’라고 응답한 노인이 5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표 2-33〉 평소 운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예	아니요	전체
65-69	22(56.4)	17(43.6)	39(100)
70-74	16(45.7)	19(54.3)	35(100)
75-79	10(37)	17(63)	27(100)
80-84	10(52.6)	9(47.4)	19(100)
85이상	1(33.3)	2(66.7)	3(100)
전체	59(48)	64(52)	123(100)

- 음식의 양, 종류 조절 등의 영양관리를 하는 노인은 5.9%에 불과해 노년기 영양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노년기 영양섭취와 조절에 대한 지침과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34〉 영양관리 (음식의 양, 종류 조절)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예	아니요	전체
65-69	3(7.7)	36(92.3)	39(100)
70-74	2(5.9)	32(94.1)	34(100)
75-79	2(7.7)	24(92.3)	26(100)
80-84	0(0)	18(100)	18(100)
85이상	0(0)	2(100)	2(100)
전체	7(5.9)	112(94.1)	119(100)

- 구강 상태로 인해 음식 섭취가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62%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구강 상태로 음식 섭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의 구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더불어 이에 맞는 조리방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표 2-35〉 구강 상태에 따른 음식섭취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예	아니요	전체
65-69	21(55.3)	17(44.7)	38(100)
70-74	20(57.1)	15(42.9)	35(100)
75-79	18(69.2)	8(30.8)	26(100)
80-84	14(73.7)	5(26.3)	19(100)
85이상	2(66.7)	1(33.3)	3(100)
전체	75(62)	46(38)	121(100)

- 지난 2년 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84.4%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

〈표 2-36〉 지난 2년 간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있다	없다	전체
65-69	34(87.2)	5(12.8)	39(100)
70-74	29(85.3)	5(14.7)	34(100)
75-79	21(77.8)	6(22.2)	27(100)
80-84	16(84.2)	3(15.8)	19(100)
85이상	3(100)	0(0)	3(100)
전체	103(84.4)	19(15.6)	122(100)

- 지난 1년 간 병의원 진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가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치과 진료를 못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22.5%의 노인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치과 진료의 접근성이 일반 병의원에 대해 다소 떨어짐을 짐작해볼 수 있음(표 2-37, 2-38).

〈표 2-37〉 지난 1년 간 병의원 진료 못 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있다	없다	전체
65-69	2(5.1)	37(94.9)	39(100)
70-74	2(5.9)	32(94.1)	34(100)
75-79	3(11.1)	24(88.9)	27(100)
80-84	2(10.5)	17(89.5)	19(100)
85이상	0(0)	3(100)	3(100)
전체	9(7.4)	113(92.6)	122(100)

〈표 2-38〉 지난 1년 간 치과 진료 못 받은 경험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있다	없다	전체
65-69	9(23.7)	29(76.3)	38(100)
70-74	8(22.9)	27(77.1)	35(100)
75-79	6(23.1)	20(76.9)	26(100)
80-84	4(22.2)	14(77.8)	18(100)
85이상	0(0)	3(100)	3(100)
전체	27(22.5)	93(77.5)	120(100)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여부’에 대해 ‘해당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9.3%로, 이를 제외한 약 20%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2-39〉 일상생활 수행에서 타인의 도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예	아니요	해당없음	전체
65-69	0(0)	1(2.6)	37(97.4)	38(100)
70-74	3(8.6)	3(8.6)	29(82.9)	35(100)
75-79	4(15.4)	3(11.5)	19(73.1)	26(100)
80-84	5(26.3)	5(26.3)	9(47.4)	19(100)
85이상	1(33.3)	0(0)	2(66.7)	3(100)
전체	13(10.7)	12(9.9)	96(79.3)	121(100)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20% 중 도움의 주체가 가족인 경우는 10%로, 수요자의 절반 정도가 가족의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0〉 도움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도움받음	도움받지 않음	해당없음	전체
65-69	0(0)	0(0)	39(100)	39(100)
70-74	2(5.9)	0(0)	32(94.1)	34(100)
75-79	4(15.4)	0(0)	22(84.6)	26(100)
80-84	5(27.8)	0(0)	13(72.2)	18(100)
85이상	1(33.3)	0(0)	2(66.7)	3(100)
전체	12(10)	0(0)	108(90)	120(100)

-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의 주체가 친척/이웃/친구이거나 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서비스 활용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2-41〉 도움의 주체가 친척, 이웃, 친구인 경우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도움 받음	도움 받지 않음	해당없음	전체
65-69	0(0)	0(0)	39(100)	39(100)
70-74	0(0)	2(5.9)	32(94.1)	34(100)
75-79	1(3.8)	3(11.5)	22(84.6)	26(100)
80-84	1(5.6)	4(22.2)	13(72.2)	18(100)
85이상	0(0)	1(33.3)	2(66.7)	3(100)
전체	2(1.7)	10(8.3)	108(90)	120(100)

〈표 2-42〉 도움의 주체가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인 경우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도움받지않음	해당없음	전체
65-69	0(0)	39(100)	39(100)
70-74	3(8.6)	32(91.4)	35(100)
75-79	4(15.4)	22(84.6)	26(100)
80-84	5(27.8)	13(72.2)	18(100)
85이상	1(33.3)	2(66.7)	3(100)
전체	13(10.7)	108(89.3)	121(100)

〈표 2-43〉 도움의 주체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인 경우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도움 받음	도움 받지 않음	해당없음	전체
65-69	0(0)	0(0)	39(100)	39(100)
70-74	0(0)	3(8.6)	32(91.4)	35(100)
75-79	1(3.8)	3(11.5)	22(84.6)	26(100)
80-84	1(5.6)	4(22.2)	13(72.2)	18(100)
85이상	0(0)	1(33.3)	2(66.7)	3(100)
전체	2(1.7)	11(9.1)	108(89.3)	121(100)

〈표 2-44〉 도움의 주체가 노인돌봄 서비스인 경우

(단위 : 명, %)

구분 연령(세)	도움 받음	도움 받지 않음	해당없음	전체
65-69	0(0)	0(0)	39(100)	39(100)
70-74	0(0)	3(8.6)	32(91.4)	35(100)
75-79	0(0)	4(15.4)	22(84.6)	26(100)
80-84	0(0)	5(27.8)	13(72.2)	18(100)
85이상	0(0)	1(33.3)	2(66.7)	3(100)
전체	0(0)	13(10.7)	108(89.3)	121(100)

제3절.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1. 조사 개요

- 조사의 목적은 현재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을 통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기초 정보를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고 전략과제를 설정하고자 함.
-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환경(주거환경, 건물 및 옥외환경, 교통 등)과 사회문화(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 지역사회 서비스 등), 노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 등 노인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욕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고령친화도 진단 방법은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와 노인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에 기초하였음.
- 먼저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에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를 실시함(제주발전연구원, 2014).
 -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내용에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 평가의 8대 영역(옥외환경과 건물, 교통환경, 주거환경,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 및 일자리,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지지 및 보건)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노인들의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함.

〈표 2-45〉 고령친화도 조사를 위한 연구 설계

연번	방법	내용	
1	2차 자료 분석	- 제주발전연구원(2014),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	
2	포커스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 총 8명	일반노인 : 총 55명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인터뷰	- 제주시 노형동, 아라동, 조천읍 - 서귀포시 동홍동(2회), 대정읍
3	심층면접	와상노인 수발자 심층면접	

2.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가. 외부환경(건물, 옥외환경, 주거환경 및 교통)

1) 건물 및 옥외환경

- 옥외환경의 고령친화도 정도에 대한 응답노인의 주관적 인식 분포를 보면(표 2-47 참조), ‘우리 동네는 찾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0.8%가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표 2-46〉 옥외환경과 건물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우리 동네는 찾길과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다.	17 (3.4)	94 (18.9)	84 (16.9)	215 (43.3)	87 (17.5)	497 (100)	3.53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걷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	8 (1.6)	52 (10.4)	106 (21.3)	216 (43.6)	115 (23.1)	497 (100)	3.76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다.	18 (3.6)	64 (12.9)	97 (19.5)	205 (41.2)	113 (22.7)	497 (100)	3.67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37 (7.8)	82 (17.3)	132 (27.9)	141 (29.8)	81 (17.1)	473 (100)	3.31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	21 (4.2)	53 (10.7)	82 (16.5)	226 (45.5)	115 (23.1)	497 (100)	3.73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35 (7.0)	76 (15.3)	103 (20.7)	168 (33.9)	115 (23.1)	497 (100)	3.51

- ‘우리 동네는 길이 평평해서 길을 걸거나 보행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6.7%(332명)가 ‘편리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2%(60명)는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FGI의 결과는 설문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찾길과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음. 특히,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이 쉽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또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여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사례도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잘 갖추어져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3.9%(318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5%(82명)은 ‘아니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우리 동네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서 길을 건널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3명 중 46.9%(222명)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6.1%(119명)는 ‘서둘러야한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신호등 시간에 대한 의견도 설문조사와 FGI 내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인터뷰 결과 신호등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길을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곤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더라도 곧 빨간불로 바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일부 노인들은 무조건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공공건물(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출입구에는 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이 있어 드나들기 편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8.6%(341명)가 '편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4.9%(74명)는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우리 동네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근린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8명 중 57%(284명)는 '조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2.3%(111명)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 교통환경

- 제주지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표 2-48) 평가 중 '시내(외) 버스를 타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9명 중 67.8%(318명)가 '쉽게 갈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9.7%(92명)는 '쉽게 가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일반노인 FGI 결과 시내버스의 운행 노선이나 정보전달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시내권으로 가기위한 버스가 마을까지 닿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음.
-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3명 중 56.4%(261명)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9.2%(135명)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일반노인 FGI 결과 정류장의 위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 마을의 경우(농어촌지역) 버스정류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 이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나 셔틀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표 2-47〉 교통 환경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시내(외) 버스로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다.	20 (4.3)	72 (15.4)	59 (12.6)	228 (48.6)	90 (19.2)	469 (100)	3.63
시내버스 정류장이 집 근처에 있어 쉽게 이용한다.	43 (9.3)	92 (19.9)	67 (14.5)	188 (40.6)	73 (15.8)	463 (100)	3.34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	15 (3.3)	25 (5.4)	68 (14.8)	244 (53.0)	108 (23.5)	460 (100)	3.88
버스 운전기사는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	24 (5.1)	72 (15.4)	148 (31.7)	171 (36.6)	52 (11.1)	467 (100)	3.33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22 (5.8)	67 (17.5)	153 (40.1)	122 (31.9)	18 (4.7)	382 (100)	3.12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	6 (2.4)	37 (14.6)	96 (37.80)	87 (34.3)	28 (11.0)	254 (100)	3.37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	4 (1.6)	39 (15.7)	94 (37.8)	82 (32.9)	30 (12.0)	249 (100)	3.38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	85 (22.3)	148 (38.7)	84 (22.0)	43 (11.3)	22 (5.8)	382 (100)	2.40

- ‘ 시내버스 정류장에 의자와 차양막(지붕)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0명 중 76.5%(352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7%(40명)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일반노인 FGI 결과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대부분 의자와 차양막이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설치된 의자나 차양막이 충분하지 않으며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눈/비가 올 때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출발과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천천히 운행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7명 중 47.7%(223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0.5%(96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일반노인 FGI 결과 일부 버스운전기사들이 노인들에게 불쾌한 말투로 짜증을 내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특히, 승하차 직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스를 세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함.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택시 운전기사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82명 중 36.6%(140명)가 ‘배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3%(89명)는 ‘배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자가용을 운전할 때 교통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게 크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54명 중 45.3%(115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43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도로의 폭이 넓어 자가용을 운전하기에 편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49명 중 44.9%(112명)가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3%(43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82명 중 61%(233명)가 ‘택시비가 비싸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17.1%(65명)는 ‘택시비는 적절하여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3) 주거환경

- 제주지역 주거환경의 고령친화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표 4-49),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57.5%(285명)가 ‘내가 사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5.6%(127명)는 ‘집 내부에는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응답함(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표 2-48〉 주거환경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 통	그런 편이다	매 우 그렇다	합계	평 균
집 내부에는 문턱이 없어서 안전하다.	23 (4.6)	104 (21.0)	84 (16.9)	184 (37.1)	101 (20.4)	496 (100)	3.47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	76 (15.3)	154 (31.0)	113 (22.7)	122 (24.5)	32 (6.4)	497 (100)	2.76
부엌의 싱크대와 찬장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하다.	94 (19.0)	161 (32.6)	123 (24.9)	86 (17.4)	30 (6.1)	494 (100)	2.59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13 (2.7)	40 (8.4)	154 (32.4)	194 (40.8)	74 (15.6)	475 (100)	3.58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76 (15.3)	142 (28.7)	128 (25.8)	127 (25.6)	22 (4.4)	495 (100)	2.75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경찰)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78 (15.8)	100 (20.3)	176 (35.7)	116 (23.5)	23 (4.7)	493 (100)	2.81
집 가까이에 편의시설이 있다.	85 (17.1)	75 (15.1)	107 (21.6)	166 (33.5)	63 (12.7)	496 (100)	3.09

○ ‘내가 사는 집의 화장실에 들어갈 때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46.3%(230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0.9%(154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FGI 결과 주택 내부 시설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정책적인 지원으로 개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음. 또한 노인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나 설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럼에도 주택 내에서의 낙상에 대해 우려하는 노인들이 많았음. 특히 욕실이 미끄러워 늘 불안하다고 함.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미끄럼방지테이프 등을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함(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내가 사는 집의 부엌은 내 키에 비해 싱크대와 찬장 높이가 맞지 않아 밥 짓고 설거지 하는데 불편한 편이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4명 중 51.6%(255명)는 ‘불편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5%(116명)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내가 사는 집은 냉·난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75명 중 56.4%(268명)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1.1%(53명)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내가 사는 집은 경제적 부담 없이 냉·난방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5명 중 44.0%(218명)가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0%(149명)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3명 중 36.1%(178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8.2%(139명)는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편의시설(약국, 병·의원, 보건소, 가게, 슈퍼마켓 등)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46.2%(229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2.2%(160명)는 ‘없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집 주변의 편의시설은 FGI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시내지역의 경우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우유 한 모금조차 사 먹으려 해도 살 곳이 없다”라고 응답할만큼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도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나.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1) 사회참여

- 사회참여에 대한 평가(표 2-49 참고) 중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497명 중 79.5%(425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5.4%(27명)는 ‘없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FGI 결과 여가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관이 협조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거나, 거리적 한계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충분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8명 중 55.9%(277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6.1%(129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참석하는 횟수는 노인의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의 여성 노인의 경우 거의 매일 경로당에 참석하는 반면 남성 노인들은 점심식사 대접이나 운동 프로그램, 회의 등과 같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 경로당을 찾는 경

우가 많았음. 또한 60대~7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노인들은 활동 반경이 더욱 넓고,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응답함(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 거리와 놀 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0명 중 58.8%(282명)가 ‘즐겁고 유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1%(77명)는 ‘유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벌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5명 중 55.4%(274명)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3%(120명)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5.0%(323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8.4%(42명)는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2-49〉 사회참여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이 있다.	6 (1.2)	21 (4.2)	75 (15.1)	268 (53.9)	127 (25.6)	497 (100)	3.99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을 1주일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51 (10.3)	78 (15.8)	89 (18.0)	117 (23.6)	160 (32.3)	495 (100)	3.53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산책 및 운동시설 등에 가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배울거리와 놀거리가 많아 즐겁고 유익하다.	20 (4.2)	57 (11.9)	121 (25.2)	155 (32.3)	127 (26.5)	480 (100)	3.66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나 노인회, 동창회(갑장회), 문중회(별초, 제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0 (8.1)	80 (16.2)	101 (20.4)	178 (36.0)	96 (19.4)	495 (100)	3.43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친척이 있다.	9 (1.8)	33 (6.6)	132 (26.6)	242 (48.7)	81 (16.3)	497 (100)	3.71

2) 시민참여 및 일자리

〈표 2-50〉 시민참여 및 일자리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	123 (26.4)	131 (28.1)	103 (22.1)	79 (17.0)	30 (6.4)	466 (100)	2.50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	127 (26.0)	113 (23.1)	115 (23.5)	87 (17.8)	47 (9.6)	489 (100)	2.62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51 (30.9)	174 (35.6)	83 (17.0)	65 (13.3)	16 (3.3)	489 (100)	2.22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	114 (23.8)	146 (30.5)	147 (30.8)	57 (11.9)	14 (2.9)	478 (100)	2.39

- 시민참여 및 일자리의 고령친화도 평가(표 2-51) 중 ‘나는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66명 중 23.4%(109명)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54.5%(254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FGI 결과 행정이나 마을 시설물 등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적인 의견 피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

터뷰 참가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노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행정체계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노인포커스그룹인터뷰).

-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기관을 위해 (무급)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중 27.4%(134명)는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9.1%(239명)가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내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중 16.6%(81명)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6.5%(325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의견은 FGI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보다는 보다 다양한 취미여가프로그램의 개설을 원한 반면, 저소득층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지급되는 일당이 부족하여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포커스 그룹 인터뷰, 2015).
- ‘우리 동네(마을)에는 공공근로나 유급 자원봉사 기회가 많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1명 중 14.8%(71명)는 ‘기회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54.3%(260명)가 ‘기회가 없다’고 응답함(2014년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다.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1) 존중과 사회통합

〈표 2-51〉 존중과 사회통합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	4 (0.8)	19 (3.8)	113 (22.8)	219 (44.2)	141 (28.4)	496 (100)	3.96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다.	5 (1.0)	30 (6.0)	128 (25.8)	185 (37.2)	149 (30.0)	497 (100)	3.89
우리 동네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	37 (7.6)	77 (15.8)	125 (25.7)	168 (34.5)	80 (16.4)	487 (100)	3.37

- 존중과 사회통합 평가 중 ‘공공기관(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이나 의료기관의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72.6%(360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4.6%(23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67.2%(334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7%(35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체육대회, 식사대접 등)가 매년 1회 이상 개최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7명 중 50.9%(248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4.4%(114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2)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평가 중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54.6%(271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5% (82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음(표 2-52 참고).

〈표 2-52〉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마을의 중요한 정보는 마을회 조직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14 (2.8)	68 (13.7)	143 (28.8)	195 (39.3)	76 (15.3)	496 (100)	3.51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17 (3.4)	78 (15.8)	127 (25.7)	222 (44.8)	51 (10.3)	495 (100)	3.43
손자녀 세대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듣는다.	14 (2.8)	80 (16.2)	103 (20.9)	173 (35.0)	124 (25.1)	494 (100)	3.64
전화(유무선) 사용이 익숙하여 쉽게 전화할 수 있다.	18 (3.7)	63 (12.8)	109 (22.2)	152 (30.6)	150 (30.2)	492 (100)	3.72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전달해준다.	28 (5.6)	113 (22.7)	184 (37.0)	127 (25.6)	45 (9.1)	497 (100)	3.09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크다.	95 (19.4)	143 (29.2)	148 (30.3)	77 (15.7)	26 (5.3)	489 (100)	2.58

-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5명 중 55.1%(273명)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9.2%(95명)는 ‘없다’고 응답하였음.
- ‘손자녀 세대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특히 제주말)을 잘 알아들으며, 대화에 지장이 없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1%(297

명)가 ‘대화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8.8%(94명)는 ‘대화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유선전화나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여 필요할 때 쉽게 전화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2명 중 61.8%(302명)가 ‘쉽게 전화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6.5% (81명)는 ‘전화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7명 중 34.7%(172명)가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8.3%(141명)는 ‘잘 전달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이나 서류양식은 글자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읽기 편하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89명 중 48.6%(238명)가 ‘읽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1.0%(103명)는 ‘읽기 편하다’고 응답하였음.

3)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표 2-53〉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	65 (13.1)	108 (21.8)	94 (19.0)	175 (35.3)	54 (10.9)	496 (100)	3.09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3 (0.6)	27 (5.4)	84 (16.9)	253 (51.0)	129 (26.0)	496 (100)	3.97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	94 (21.6)	115 (26.4)	125 (28.7)	88 (20.2)	14 (3.2)	436 (100)	2.56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119 (27.2)	122 (27.9)	118 (27.0)	66 (15.1)	12 (2.7)	437 (100)	2.37

- 지역사회지원과 건강서비스 평가 중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46.2%(229명)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34.9%(173명)는 ‘우리 집 가까이에 없다’고 응답하였음.

-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6명 중 77.0%(382명)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6%(30명)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36명 중 48.0%(209명)가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23.4%(102명)는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37명 중 54.9%(241명)가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17.8%(78명)는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제3장. 고령친화도 진단을 통한 핵심문제 도출

제1절.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가. 핵심문제 : 개요

- 주거환경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가 도출되었음.

〈표 3-1〉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핵심문제

연번	핵심문제
1	보편적 정주권 보장을 위한 고령화 대응 주택의 보급 확대 및 개량
2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 보장
3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의 보장

나. 핵심문제 : 세부내용

- 교통, 외부환경 및 주거환경에 대해 도출한 핵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핵심문제 1. 보편적 정주권 보장을 위한 고령화 대응 주택의
보급 확대

-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형태로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령자세대를 배려한 주택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신체적인 기능 저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주택 내의 물리적인 장애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함.
- 또한 신체기능의 저하가 수반되었을 경우, 추락 및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주택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택 개량이 필요함.
-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실정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방안 설정이 중요함.

○ 배경

- 노인의 주거복지에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법제화는 1981년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1981.6.5. 법률 3453호)제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짐.
- 2004년도에는 건설교통부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건교부 주거복지과에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기준」을 마련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 조사결과

- 2014년 사회조사(통계청, 2014)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 내 불편한 공간으로 화장실과 욕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화장실과 욕실은 단순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므로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사회참여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동시설 수가 많고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검토 필요성이 있는 세부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세부정책과제 1

저소득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고령자를 위한 주택설계 지침서의 보급 확대와 개량 (도시형과 농촌형 고령자주택모형 및 사회복지서비스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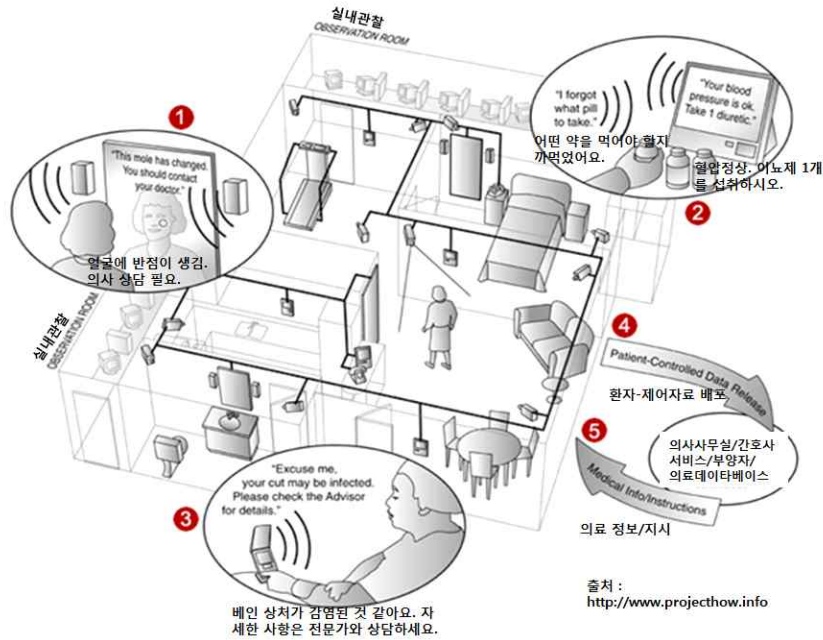
② 세부정책과제 2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세대교류형 주거형태의 제공 확대(공동형 주택(Share House))

③ 세부정책과제 3

농촌주거의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IT를 접목한 마을 단위 네트워크형 거주형태 지원 시스템 개발과 확대

<그림 3-1> 지능형 의료시설 구비주택(Smart Medical Home)



■ 핵심문제 2.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 보장

- 노년기의 이동 문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신호등 및 도로설비 등의 정비가 필요함.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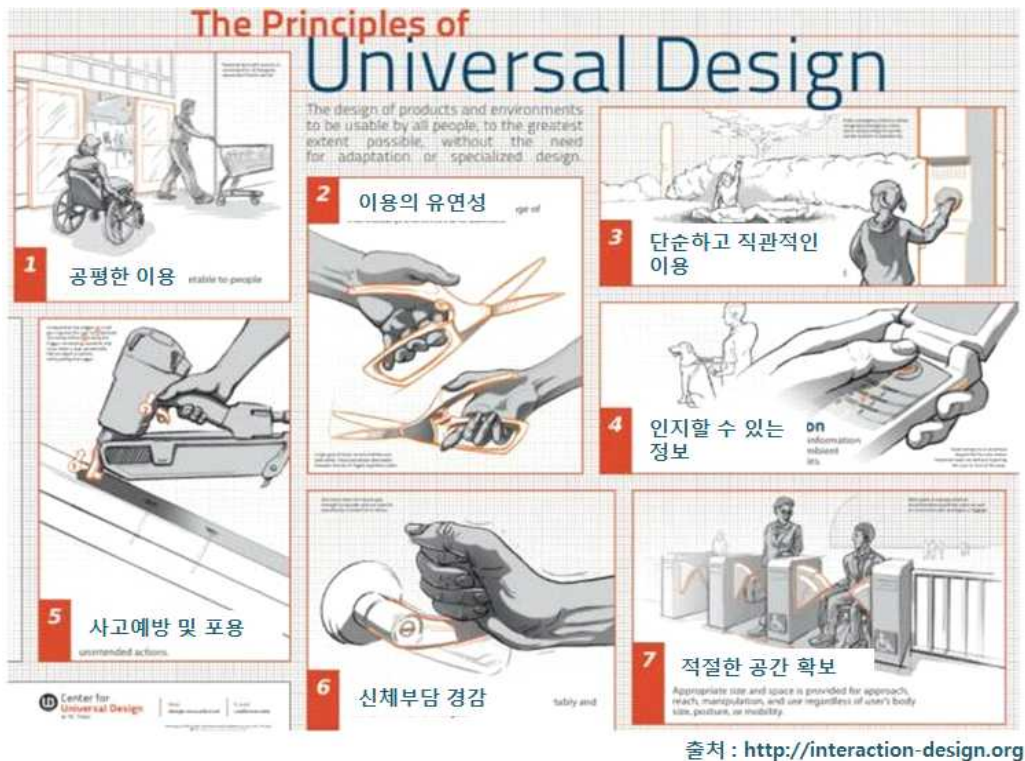
- 사회복지 이념으로서의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²⁾은 오랜 전부터

2) 노멀라이제이션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를 특수하게 보고 격리하여 처우하는 것보다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뜻은 고령자와 젊은이,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정상적인 사회이며, 고령자나 장애인의 시설을 만들고 그들을 먼 곳에 격리 또는 분단시키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각종 의사결정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용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지이념이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이념이 확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주어,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 시 사회적 약자도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장애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는데 건축 및 도시디자인에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임.

〈그림 3-2〉 Universal Design(UD)의 원칙



-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협의의 개념과 의자, 책상, 의류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적용되는 광의의

되어 노인주택의 아파트화 및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중시, 지역복지의 확충, 의료 및 교육과 복지의 통합화 등 여러 동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산백과)

개념으로도 적용됨.

- 유니버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4가지 문제 즉, “이동성”, “안전성”, “편리성”, 그리고 “경제성” 확보라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 내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기반을 둔 도시와 건축 공간의 확산임.

○ 조사결과

-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경우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마을의 경우, 시내방향 버스가 마을까지 닿지 않아 시내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추가로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버스 운행 노선의 확대 . 개편이 필요함.
 - 버스 운행시간이 중 · 고등학생의 등 · 하교 시간에 맞추어 운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행 시간을 노인들이 활동하는 시간(병원진료, 시장보기, 공공기관 방문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보로 이동이 쉽지 않음. 따라서 단거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주택가 골목까지의 이동을 보조해주는 수단이 필요함.
 - 버스정류장의 차양막과 바람막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으며, 심지어 눈 · 비, 바람 등을 전혀 피할 수 없는 정류장도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버스 운전기사들의 태도나 운전 방식에 대한 지적도 다수 있었음. 버스를 정차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하여 노인들이 차도를 걸어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또한 행동이 느린 노인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재촉을 하기도 해 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한다는 사례도 있었음.

- 자가용 운전의 경우 사고예방 의 차원에서 신호등 및 도로 설비 등의 정비가 필요함.
- 검토 필요성이 있는 세부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세부과제 1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 대응 자동차, 신호체계, 교통정보전달 시스템, 가로등 등과 같은 설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마련과 정비가 필요함.

〈그림 3-3〉 설비측면에서의 정비사례



② 세부과제 2

경사로, 평탄한 길 조성, 버스정류소과 같은 비설비적인 접근방안 마련과 정비

〈그림 3-4〉 비설비 측면에서의 정비사례



■ 핵심문제 3.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의 보장

-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의 형태로 일부 공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령자세대를 배려한 주택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신체적인 기능 저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주택 내의 물리적인 장애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함.
- 제주특유의 기후와 생활양식을 고려한 고령자용 주택(도시형과 농촌형)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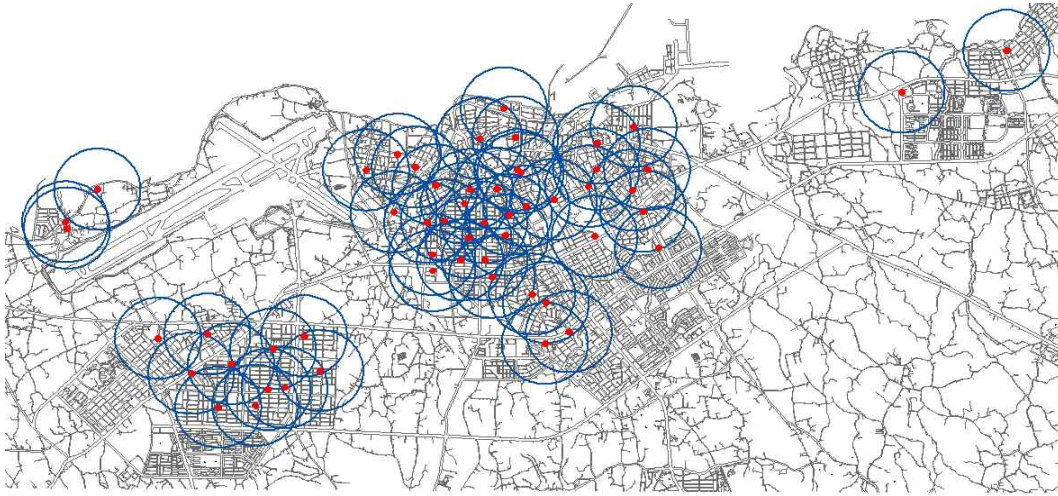
○ 조사결과

-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전개되는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보행권 단위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되, 지역단위와 도시단위로 확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사회조사에서는 ‘걸어서 의료기관까지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0%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걸어서 일상용품 구매 장소까지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이 약 25%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적절한 재배치가 필요함.

- 노인 FGI에서도 위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 70대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 대부분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원거리(遠距離)에 있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 가기 위해 매번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간단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슈퍼마켓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우유 한 모금을 먹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 먹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사례에서부터 “언제든지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는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법체계상 지역거점 시설과 전문 기능적 시설로서의 기능적 전개를 일정 부분 담당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생활공간까지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이들 지역에는 개별 병·의원을 비롯하여 파출소, 목욕탕, 초등학교 경로당 등 잠재적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이들 자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교 시설로서는 성당보다는 교회가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고, 학교 시설 역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제주지역 목욕탕의 경우 비교적 넓게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그림 3-5 참고), 500m 보행권의 범위 내에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3-5〉 제주지역 목욕탕 시설의 보행권(원의 반경500m) 권역 범위현황



제2절.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가. 핵심문제 : 개요

사회참여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가 도출되었음.

〈표 3-2〉 사회참여 핵심문제

연번	핵심문제
1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동시설 등에서 행해지는 교육 및 여가활동 참여도는 높은 편이지만 노인복지관은 이용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하며, 경로당은 개소 수는 많으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노인 특성 및 생활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함.
2	- 사회참여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
3	-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민원이나 의견제시를 위한 창구나 절차를 모름.
4	- 한정적인 수입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함. - 일을 하고 싶어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5	- 공공근로나 유급자원봉사의 기회가 적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시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노인 일자리 대상자 선정자격 요건의 지나친 제약

나. 핵심문제 : 세부내용

사회참여에 대해 도출한 핵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핵심문제 1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동시설 등에서 행해지는 교육 및 여가활동 참여도는 높은 편임.
-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이용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하며, 경로당의 경우 개소 수는 많으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노인 특성 및 생활패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함.

○ 배경

- 노인 사회참여는 주로 노인 교육 및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그 기능을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전문개정 2015.1.28./시행일 2015.7.29.).
- 노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여가시간이 매우 많아 의미있게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가복지시설의 설치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정년퇴직자, 고학력자 등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노인세대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편, 지역사회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미술관 등을 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노인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

- 사회참여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제주발전연구원, 2014), 집 주변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동시설 수가 많고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반노인 FGI 분석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용자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하여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이 일찍 마감되어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FGI에서도 일반노인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 경로당의 경우는 활성화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지역적 편차가 있어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 특성 및 생활패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었는데 그게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기위한 접근성이 서귀포지역은 소외가 되었고, 읍면지역 농어촌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받고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노인복지전문가 A)

“교육 프로그램은 50명이상의 인원을 수용 하더라도 충분히 강의가 진행이 가능한데 시설이 워낙 작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30명을 해도 시간당 3만원, 50명을 강의해도 3만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넓혀주라고 하지만 저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당도 마찬가지예요. 가요 프로그램은 150명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밀집

하다보니까 1000명을 놓고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500명이상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있다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노인복지전문가 A)

■ 핵심문제 2

- 사회참여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조사결과

- 노인여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어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

“예산의 75%가 보조금이에요.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던가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수입. 그렇게 운영을 하죠. ... 노인 분들은 그동안 무료로 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죠.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잘하니까 반을 따로 만들어주라’는 말이 많아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반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전문가 A)

■ 핵심문제 3

-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민원이나 의견제시를 위한 창구나 절차를 모름.

○ 배경

- 시민참여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임.
- 노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오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경험, 삶의 비결이 풍부하여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의견개진을 한다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더디어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 조사결과

- 사회참여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 반상회와 같은 동네 주민들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이야기 한다는 응답자는 23.4%에 그쳐 시민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2014년도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일반노인 FGI 분석내용에 따르면, 노인들의 의견개진은 주로 노인회장 등 단체의 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노인 개인이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문제 제기해도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민원이나 의견개진을 위한 창구나 절차를 알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핵심문제 4

- 한정적인 수입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함.
- 일을 하고 싶어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시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노인 일자리 대상자 선정자격 요건의 지나친 제약

○ 배경

-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인력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아울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일생 중 노년기로 지내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고령자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령자의 소득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령자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노력과 동시에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조사결과

- 사회참여에 대한 고령친화도 조사 결과,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일반노인 FGI 분석내용에 따르면, 병원비, 생활비 등 질병치료 및 생계를 위해 소득이 있는 일을 해야 하나, 나이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 횟수와 1일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 역시 20만원으로 고정시켜 놓았는데, 활동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임금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움.

“제주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복지형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돌보미 파견을 30자리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식당을 오픈했는데 내년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정부예산을 조금 받아서 할 것 같아요. 복지관 내에서 일자리 어르신 을 모집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찾아 보는데 없더라고요”(노인복지전문가 C)

“더 일하고 싶지만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있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월 20만원(최저임금)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그 임금을 맞추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활동시간이 줄어든거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최소30만원은 되야 현재 경제 상태로 봤을때 약값도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할 수 있을건데요.”(노인복지전문가 C)

“어차피 노인일자리에 일하러 가면, 하루 일과시간이 많던 적던 그 날 하루는 버리는거거든요. 다른 활동은 못하고, 그럴바엔 노동 시간을 한 두 시간 늘려서 일 하고 인건비를 더 가져가면 좋지요”(사례자 A, 여성, 70대)

제3절.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가. 핵심문제 : 개요

-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핵심문제 도출은 “6개 지역 노인 FGI”와 “노인복지 전문가 인터뷰”, “장기요양보호 노인 수발자 4인의 심층 인터뷰”를 주 자료로 하고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를 보조 자료로 하여 6개의 핵심문제를 도출하였음.
- 사회존중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과거와 달리 노인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어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지역 내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고, 사회활동이나 구조도 젊은층 위주로 흘러가고 있음.
-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의 문제도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나 새로운 언어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전달과정에서 지역적 편차가 있어 농촌지역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실행에 있어서 담당자나 사업책임자의 책임 있는 홍보와 전달체계 구축을 원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의 수요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본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이용과 접근성의 낮아 농촌 노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슈퍼마켓, 약국, 병원 등이 없어서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로당 등에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파견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터뷰 결과 해당 환자 및 수발 가족의 실질적인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지역사회서비스 핵심문제

연번	핵심문제
1	- 노인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어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지역의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와의 사회적 통합 활동이 부족함
2	-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혜택 수행 시 정보 전달의 미흡으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전달에 한계가 있음
3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도·농간 차이가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 이용 프로그램들이 한정되어 있음
4	- 와상노인의 경우 침대가 장착된 차량이 아니면 이동이 쉽지 않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해야하는 환자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5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데 비해 실제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 않음.
6	- 발병, 사고 등으로 와상환자에 대한 수발이 갓 시작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수발 기술의 부재 등으로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나. 핵심문제 : 세부내용

외부환경에 대해 도출한 핵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핵심문제 1

-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고, 다른 세대와의 교류가 결여되어 세대 간의 물이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의 부족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 배경

- 모든 사회에 있어 여러 연령층 간의 존중과 사회통합은 살기 좋은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노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노인 세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들 또한 젊은이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즉 세대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됨.
-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괴리가 깊어지고 있음.
- 따라서 노화가 자연스런 인간발달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 홍보 등이 필요함.
-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결과

- 2014년에 수행된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의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영역”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7.7%로, 절반 이상의 노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일상 생활 차별 경험을 느꼈다고 답한 경우가 118명중 3명으로 2.5%에 불과하나,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 ‘만족한다’ 28.8%, ‘그저 그렇다’ 33.8%, ‘만족하지 않는다’ 34.7%로 조사되어 노인들을 위한 사회/여가/문화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노인세대 참여 프로그램이나 세대교류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노인세대들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인성교육(예절교육, 노인존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방송 등에서도 노인세대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오락 및 정보 프로그램,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노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결과에서 조사 대상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외로움과 소외감을 많이 표현함.
- 또한, 과거와는 달리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공영 버스 기사들이 독해. 노인들은 공짜로 타려고 하니까.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저번에 저는 사고가 났어요. 성당에 가는 길이었었는데 다리 한쪽도 내리기 전에 출발해버려서 뒤로 넘어져서 병원에 두어달 입원했었어요. 승하차 전에 기사들이 노인들이 동작이 느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출발해버렸지. ... 사람이 다 앉은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데 올라가자마자 출발해버려서. 오일장 가는데 차가 바로 출발해버려서 몸이 뒤로 넘어질 뻔 했어요. 한마디 하려다가 안했는데. 진짜 불친절해요. 노인들을 태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례자 B, 80대, 여성)

“노인들한테 공손하게 좀 하지. 좀 뭐 한다고 그렇게 신경질내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요. ‘학생이 담배피우냐?’ 뭐라고 하면 ‘누구쇼?’ 이래요. 우리가 낭패야. 얘기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 (사례자 M, 80대, 남성)

“노인이 없으면 역사도 없어. 노인들이 있으므로 현실이 유지되고 후세가 물려받으니 노인은 역사다말이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잘하라고 요구를 해요” (사례자 N, 70대, 남성)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있는데 꼭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독거노인만 돌봐주지 말고 돈이 있던 없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도 도우미들을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냥 집으로 전화 한통 해 주는 건데 그런 건 차별을 뒀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자 F, 80대, 남성)

“농촌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고, 있다 해도 학원비다 뭐다 자식들 교육 시키려고 부부간 맞벌이로 돈을 벌러 나가버리잖아. 자기네들 먹고 살기 바쁜 개인주의 사고방식이지. 이 마을을 위하여, 어른들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요. 청년회도 그렇고 부녀회도 활동은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사례자 O, 70대, 남성)

“적십자같은 사회활동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다고 하여 노인들이 끼어 들 수 있는 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고, 젊은 애들이 상대를 안해주지” (사례자 P, 70대, 남성)

- 일반노인 FGI 분석내용에 따르면, 사회참여 활동 중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이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 무안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젊은이들의 생활이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FGI 참여자도 일부 있어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음.
- 아울러 노인공경이나 노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2014년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학대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26% 나왔어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효교육을 기본으로 하지만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제일 어렵잖아요. 교육이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리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노인복지전문가 B)

■ 핵심문제 2

-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전달과정에서 지역적 편차가 있어 농촌지역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 젊은 세대와의 교류,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전달에 한계가 있음

○ 배경

-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노인들이 새로운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 지역적 차별이 없어야 하고, 노인들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가 구축되어야 함.
- 사람은 누구든지 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함.

○ 조사결과

-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의사소통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정도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가 81%이며, ‘휴대폰 사용’은 약 75%가 사용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었으며, 젊은 세대와 정보제공과 공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2014년에 수행된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에서 나타난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평가 중 마을의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는 이장 및 노인회 혹은 마을회 조직을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이 54.6%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도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주소명, 각종 노인 지원제도)가 변경될 때 신속하게

잘 전달해준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4.7%만이 잘 전달 받는다고 하였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접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때는 큰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촌지역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을 고려한 정보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노인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관리, 소득창출, 교육, 여가 및 취미활동, 건강, 의료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소통과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상에서 서류로만 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실천을 통하여 노인과 원활한 정보교류가 가능한 행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음.
-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시행될 때, 농·어촌 지역 등을 소외시키지 말고 지역에 관계없이 형평성을 제고한 있는 정보제공 전달을 원하고 있으며, 마을 행사 등에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노인 FGI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의 문제를 볼 수 있음.

“버스환승제도가 생길 때도 처음 탈 때, 정보를 잘 몰라서 어리둥절 했지요” (사례자 C, 70대, 여성)

“복지관에 행사가 있거나 아파트에 행사가 있을 때,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여 동네 사람이라도 못 만나면 참석하기가 어렵지요.” (사례자 Q, 70대, 남성)

“방송이 잘 안 들려. 우린 나이가 들어서 귀가 막아져서 안 들려” (사례자 D, 90대, 여성)

“조천읍에 동부복지관이 생겼는데 우리노인들에게 홍보를 안 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을 무시해서 홍보가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알고 나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례자 E, 70대, 여성)

“책상에서 서류로만 하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듣는 실천적인 행정을 해주어야 주민이 편안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몰라 전혀 몰라요. 우리 읍에 제일 큰 마을만 알고 있어요. 책임자가 홍보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자 E, 70대, 여성)

“할 말이 많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례자 R, 60대, 남성)

■ 핵심문제 3

- 농어촌 노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슈퍼마켓, 약국, 병원 등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 배경

- 지역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요에 미치지 못한 실정임.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다양성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지역,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조사결과

- 2014년에 수행된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에서 지역복지 및 보건 분야 영역의 질문 중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급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의료기관, 119 구급대 등)이 우리 집 가까이에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6.2%(229명)가 가까이에 있다고 응답하였음.
- ‘보건(지)소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77.0%(382명)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8.0%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동네(혹은 마을)에는 시장보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중 54.9%가 ‘있다’고 하였음.
- 과거보다 서비스의 내용, 질,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지역사회서비스가 도·농 간에 차등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지역 노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또한 경로당 등에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노인 FGI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문제를 볼 수 있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 복지관만 해도 너무 작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례자 S, 70대, 남성)

“삼무공원에 경로당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등록만하고 참가는 안 해요. 그곳은 일주일 내내 문을 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윗놀이, 술만 마시고 수준이 정말 낮습니다. 한번 갔다가 안가요.” (사례자 T, 70대, 남성)

“여기 지금 복지관이 연령층이 높은데 60세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효율이 없어서 처음엔 60세로 잡았는데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게 나을 듯 싶어요. 대기자들이 많고 70, 80세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따라가기가 느린데 연령층을 제한을 해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례자 F, 70대, 여성)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러 가려면 또 택시를 타고 가야돼. 함덕은 병원이 많아서 보건소가 필요 없지만. 우리같이 필요한곳에 있어야 하는데.. 뭐든지 이웃 마을 큰 마을에 가야해요. 기분 나쁜 게 또 뭐냐 하면 이웃 작은 마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어중간한 우리 마을엔 별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좀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이웃마을과 동등하게 나갈 수 있게 권리를 줘야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다 죽지..”(사례자 E, 70대, 여성)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천 원씩 받는데 노인들은 좀 공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면 교습을 받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받아요. 노인들은 무료로 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코치도 받고” (사례자 O, 70대, 남성)

■ 핵심문제 4

- 와상노인의 경우 침대가 장착된 차량이 아니면 이동이 쉽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이동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와상노인의 경우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심적 부담 때문에 이용이 쉽지 않음.

○ 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1항 제5호에서“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346호, 2015. 8. 19. 일부 개정)」 제 37조(구급차등의 용도)에 의하면 위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다음과 같음. ①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③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조사결과

- 누워있는 것 이외에는 전혀 거동이 되지 않는 와상노인의 경우, 간이침대가 설치되어있는 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함.
- 병원에 속해있는 구급차량의 경우 비용이 비싸서 자주 이용할 수 없고, 119 구급차량은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기에 눈치가 보임.
- 이러한 이유로 와상노인의 외출과 이동에 제약이 큼. 특히 감기에 걸렸을 경우, 증상은 심하지 않지만 와상노인에게는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는 것이 쉽지 않음.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상으로는 교통비 지원이 되지만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이용은 쉽지 않은 실정임.

“와상환자들은 119 구급차 타는 것도 눈치 보여. 나는 그나마 우리는 엄마가 의용소방대원이어서 타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눈치는 좀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런다. 괜히 멀쩡한 사람 병원 데려가는 것 같고.”

“장애인 전용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는 휠체어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휠체어가 아니고 침대차를 뉘어야하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하

고.” (부양자 A, 40대, 여성)

“그래서 나는 왕진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생겨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감기에 걸렸었거든. 근데 병원엘 못가는거야. 감기 때문에 병원간다고 119 부르면 분명 욕먹을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는거야.” (부양자 A, 40대, 여성)

“‘운동, 재활’ 이런거 받고는 싶었는데 (그런 곳에) 데리고가지 못하는게 제일 문제였어요.” (부양자 A, 40대, 여성)

■ 핵심문제 5

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데 비해 실제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 않음.

○ 배경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 . 국가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차에 걸친 시범사업 이후 시행 준비를 거쳐 2008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에는 등급체계를 개편하여

5등급(일명‘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함.

○ 조사결과

-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의 근무시간과 겹쳐 노인을 수발하는 직장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여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이 수행하기에 쉽지 않음.
- 또한, 등급 심사 담당자가 심사 과정에서 수발자와 환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환자의 좋지 않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재확인시키기도 하고, 수발자와 환자를 의심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등급 심사 과정에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함.
- 수발용품 할인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저귀나 패드 등은 빠져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음.

“이 분들이(요양보호사) 출퇴근하는 시간이 가족들이 돈 벌어야하는 시간 이랑 안맞아.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도 출근해. 그건 되게 문제야. 퇴근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 사람 퇴근할 시간에 퇴근해. 그래서 재가를 안 쓰는 사람도 많을거야.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시간에 퇴근하면, 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동안은 환자가 방치되어야 하잖아.” (부양자 A, 40대, 여성)

“이제야 5급이 생겼거든요.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고, 받기가 힘들어요. 5급도 이제야 주야간.. 아침에 가서 오후에 오는 것도 이제야 된거고. 되게 받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사를 일 년에 한 번씩 와요. 우리 엄마 상태를 보러 오는거예요. 거짓말이 아닌지. (중략) 이렇게 등급이 나오면 받아봐야 1~2등급이야. 1~2등급 받으면 좋지.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근

데 요양원도 들어가기 힘들어. 자리가 다 꽉 차있어요. 주간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것도 자리가 꽉 차가지고..” (부양자 B, 30대, 여성)

“근데 정작 우리는 기저귀 이런 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지원이 안된다. 용품 지원 되는데, 그게 미끄럼방지, 휠체어 이런 것만 돼. 나는 기저귀 스무 개짜리를 항상 사는데, 열여덟 개에 이만 얼마... 그걸 많이 쓸 때는 3일이면 다 써버려. 그게 한 달이면 십만원이야 기본적으로. 물티슈랑. 근데 그거는 의료용품에 해당이 안돼. 미끄럼방지테이프야 한번 붙이고 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얼마 안되거든. 난 그게 너무 싫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용품은 할인 적용되는 게 없어.” (부양자 C, 50대, 여성)

■ 핵심문제 6

발병, 사고 등으로 와상환자에 대한 수발이 갓 시작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수발 기술의 부재 등으로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조사결과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수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수발 기술의 부재 등으로 정서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기존에는 건강하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던 노인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기존에는 무리 없이 했던 동작을 수행하지 못할 때 수발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노인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노인에게 화내거나 비난한 이후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기도 함.
-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피수발노인과 수발가족 및 기타 가족들이 상호간에 적응을 하게 되며, 수발자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점차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안정을 찾음.

- 따라서 수발노인의 상태와 수발 단계에 따른 멘토링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족 수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엄마한테 대하는 내가 미안해서 화가 나고 분노를 느끼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하나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화살은 나에게 하지 엄마한테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건 다 지난 것 같애. 초반에 왜 내가 엄마땀에 이 시간에 나와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내가 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부양자 B, 30대, 여성)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다 지나고나서 이제 막 부양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보여요. (중략) 근데 그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해 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의사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다 봤잖아 가족이고. 나는 시설 보내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내 눈에는 훤히 보여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내 눈엔 훤히 보이고, 이제 저 사람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지도 알겠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무리하면 앞으로 힘들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부양자 A, 40대, 여성)

“좀 힘들 때도 있었어. 엄마가 무조건 24시간 아빠 옆에 붙어있어야한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좀 힘들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것도(노하우)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그 단계가 지나야지만 (생략) 화 나지. 나도 소리지르기도 하고. 혼자 보는 거라서 절대로 소리 안 지를 수는 없어요. 간병인도 “할아버지 안돼~~ 안돼”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초반에는 환자도 자기 증상에 적응이 힘들어서 고집이 말도 못해요.” (부양자 C, 50대, 여성)

제4장. 제주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구상

- 본 장에서는 3장의 분야별 핵심문제들을 기초로 구체적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자 함.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가치는 먼저 사람 중심, 상생·통합, 네트워크, 행복으로 설정하였음. 즉, 제주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중심이 되는 기본가치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의 비전은 “사람중심의 상생·통합의 행복 공동체, 고령친화도시 제주 구현”으로 설정하였음.
-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①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② 당당한 노화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 ③ 세대 간 및 사회부문 간의 소통·배려·존중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④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로 설정하였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총 3대 분야, 23개 이슈, 23개 전략과제로 구성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함.

제1절.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1. 핵심가치 : 사람 중심, 상생·통합, 네트워크, 행복

사람 중심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고도화, 개인주의 팽배,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의 약화 등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노인들이 은퇴하여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은퇴 전 보다 상실되고, 아울러 경제적·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도 그 만큼 적게 됨.
-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직·간접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기 쉬움.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우월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음. 대신에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보다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노인을 인식하는 것임.
- 고령친화도시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함양해야함.

상생·통합

-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조직, 계층, 종교 등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성별, 연령, 학력, 지위, 소속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고령친화도시는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등 어느 누구든지 생활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생활공동체를 표방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고령친화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생·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함.

네트워크

-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도시계획가나 행정가, 노인복지 전문가, 혹은 노인들의 요구나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등 일방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음.
-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고령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민간과 행정의 함께 협력하는 접근이 중요함.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행정의 일관된 기획과 집행, 전문가 집단들의 선제적 연구와 전략 제시, 노인들의 적극적 요구와 동참, 노인복지 현장 활동가의 역량 결집,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 등이 결집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도민, 노인, 노인단체 및 복지기관, NGO, 지자체, 전문가 집단 등)들이 함께 노력하고 참여·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가 중요함.

행 복

- 제주 고령친화도시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거주지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삶의 만족을 주어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과거에 살다가 고인이 된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거주하게 될 사람들이 고령친화도시에서 모두 행복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

2. 비전(Vision)

사람 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 고령친화도시 제주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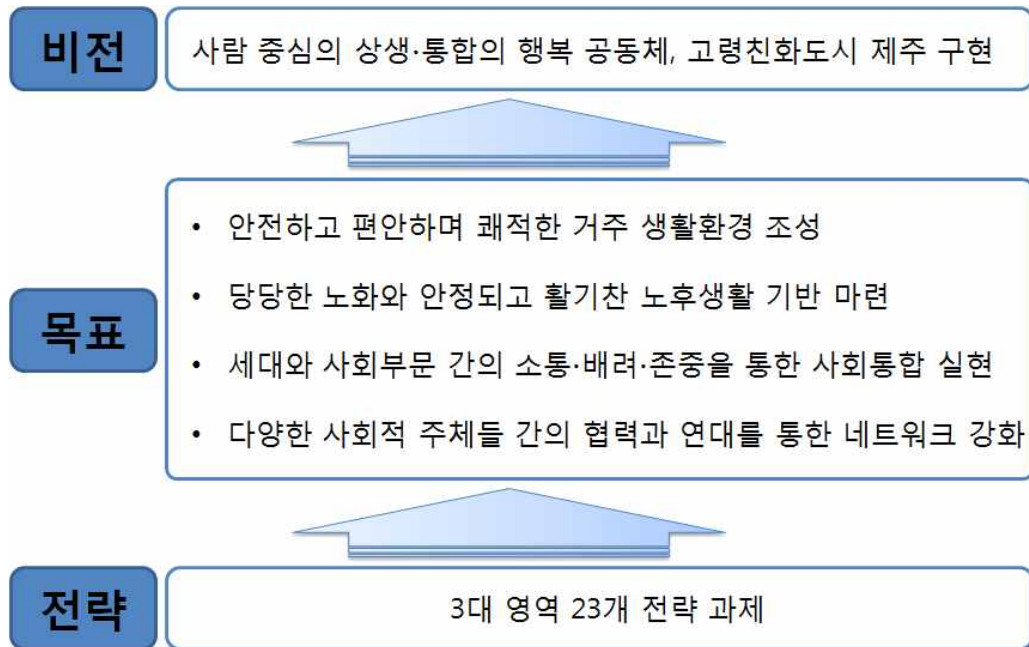
- 제주 고령친화도시는 ‘사람 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를 지향하여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임.
- ‘사람 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 의미
 -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존중받아야 함.
 - 사람은 차별과 소외를 당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생활공동체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
- ‘사람 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의 성격
 -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경제환경
 - 상생 · 협력 · 통합의 네트워크 환경
- ‘사람 중심의 상생 · 통합의 행복공동체’의 조성 방향
 - 제주다움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 제주미래 비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고령친화도시 구현 반영
 - 경제 ·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연계

- 지역경쟁력 확장에 기여
- 도민 삶의 질적 향상 도모

3. 제주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거주 생활환경 조성
 -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며 쾌적한 거주 공간을 제공함.
- 당당한 노화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
 -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적극적 변화와 생활안정을 통한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세대와 사회부문 간의 소통·배려·존중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에 소통하고 배려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 형성
 - 행정, 기업, 지역사회, NGO 등에서 노인 세대에 대한 배려·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고령사회 대응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정, 기업, 사회복지, 보건의료, 평생교육, NGO 등의 단체(혹은)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

〈그림 4-1〉 제주 고령친화도시 비전, 목표 및 전략 체계도



제2절. 분야별 이슈 및 전략과제

1.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

가. 배경

- 제주도는 고령인구비율이 14.2%에 진입했고, 수년 내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15).
- 또한 제주도는 대내외적으로 장수섬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비율이 9.65%로 국내 장수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2015).
-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주도는 외부환경, 교통, 주거환경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도시환경과 정책이 도민의 고령화에 대응하기에 적합하고, 더 나아가 고령친화도시(age friendly city)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때임.
- 앞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고령친화도 진단과 평가를 통한 핵심문제 도출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때, 외부환경, 교통 및 주거환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적 차원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age-friendly) 주거환경을 구현해야 함.
 -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도입한 주택 개량 지원을 확대해야 함.

- 한편,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전용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함.
- 고령자전용주택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를 조성해야 함.

- 노인들이 주·야간 언제든지 집 주변에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를 적용한 단지를 설계해야 함.
- CPTED 설계 요소로 자연감시 확보, CCTV 사각지대 해소, 비상벨 설치 등의 기법을 도입할 수 있음.
- 한편, 집 주변의 공공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편의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 방문서비스 및 이동서비스 확대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셋째, 고령층을 배려한 교통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또한 길을 건너거나 대로변을 보행할 때 주행 차량의 속도가 빨라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장 애화(barrier-free)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버스 승강대를 낮추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버스 내 넓은 의자를 갖추는 등의 설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버스 배차 시간이 길고 버스 노선이 복잡한 산간마을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으로 수용응답형 교통서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또한,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슈 및 전략과제

	고령친화도 진단 (ISSUE)	전략과제(INITIATIVE)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age-friendly) 주거환경 구현		
1	주택 내에서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낙상사고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을 확대한다.
2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 고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거의 없다.	고령자를 배려한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3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의 수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다.	주·야간 언제든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4	집 가까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층을 배려한 교통 환경 및 서비스 구축		
5	버스타고 내리기가 불편하고, 차량이 많아 위험하여 외출하기가 어렵다.	대중교통 무장애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6	택시비가 비싸 이용하기에 부담스럽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1)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age-friendly) 주거환경 구현

☐ 이 슈 1 주택 내에서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낙상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 전략과제 1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을 확대한다.

- 나이가 들어 신체기능이 약화될수록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고령층에게 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됨.
- 하지만 일반인 주택은 거동에 불편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방과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베란다 등 주택의 공간과 시설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음.
-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aging-in-place)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택개량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노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화장실 및 욕실, 부엌 및 싱크대, 현관 등의 공간에 안전 손잡이, 보조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고령층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이 필요함.
- 현관에는 출입이 용이한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 단차를 제거하며, 안전 손잡이와 보조의자를 설치하는 등의 개량을 실시하고, 거실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와 적정 높이의 인터폰 설치, 욕실 및 화장실에는 활동공간 확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레버형 손잡이 수전을 설치하고, 침실에는 침대 주변의 비상연락장치 설치,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 등을 설치하는 등의 개량사업을 실시함.

□ 이 슈 2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 고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거의 없다.

□ 전략과제 2 고령자를 배려한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전용 주거시설 공급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법)과 고령자전용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이용료도 비싸 대부분 고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임대주택도 아직까지는 물량 공급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님.
- 이에 수요자인 고령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령자전용주택 개발이 요구됨.
- 고령자전용주택은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건강관리는 주요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여가생활은 고령층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가능해야 함.
- 지역사회(communit) 지향의 '복합노인복지단지'도 개발할 필요가 높은데, 이 복합노인복지단지는 고령자를 위하여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음.
- 그 시범사업으로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과 김제노인복합단지 등이 조성되었음.
- 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제주형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그림 4-2〉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조감도



자료: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홈페이지(<http://www.scbokjatown.or.kr/>)

- 한편 다른 대안으로 공공이나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 단지에도 고령자전용주택을 혼합해서 배치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011년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전용단지를 조성하였는데, 아파트 내부에는 보행 보조기구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현관과 욕실에는 접이식 보조의자를 설치하였음. 한편 현관에는 건망증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 외출시 전원을 차단하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음.
- 또한 응급 시에는 입주자 전용 휴대용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있고, 동작 감시센서를 설치해 노인들의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관리실로 통보되는 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한편, 노인들이 애용하는 게이트볼장, 경로당 등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자연하천과 공원까지의 접근성도 양호하도록 단지가 설계되었음.

〈그림 4-3〉 전국 최초 고령자 맞춤형 아파트(서울시 세곡동)



자료: 헤럴드경제(2011.07.07)

2)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 이 슈 3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의 수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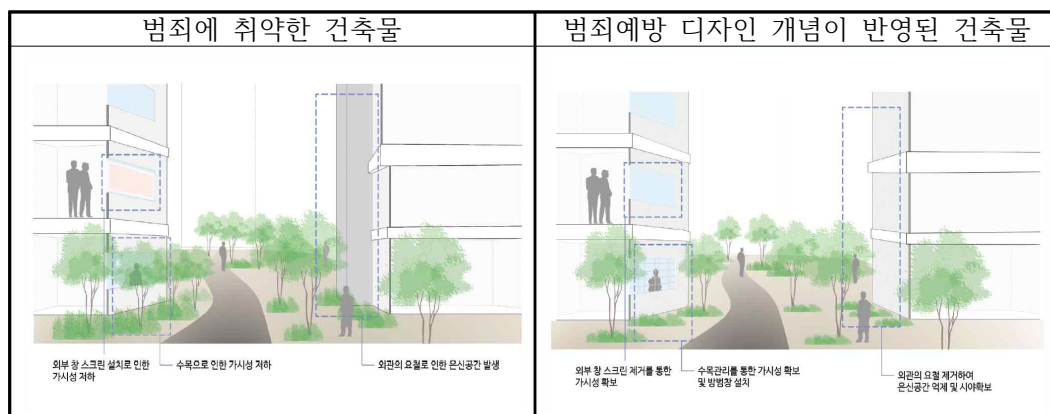
☐ 전략과제 3 주·야간 언제든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제주발전연구원, 2014) 중 주거환경 부문에서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경찰)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다’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합치면 36.1%에 달하고 있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35.7% 수준으로 나타났다.
-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안전한 외부활동을 담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를 적용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함.
- CPTED는 다학제간 연계를 통해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

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범죄 불안감을 저감시키고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과정들을 지칭함(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 폐쇄적인 공간을 개방하고 높은 벽을 허물고 공공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상벨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극 활용한 지역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그림 4-4〉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 반영 전후의 건축물 계획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82쪽

☐ 이 슈 4 집 가까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전략과제 4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 나이가 들면 체력이 저하하면서 일생생활의 활동반경이 줄어들게 됨.
- 노인들은 집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노인들에게는 집 주변의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 도시지역에서는 생활편의시설이 비교적 가까이 있으므로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함.

-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편의시설이 원거리에 있으므로, 시설의 방문서비스나 이동서비스 등을 확대함으로써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3) 고령층을 배려한 교통 환경 및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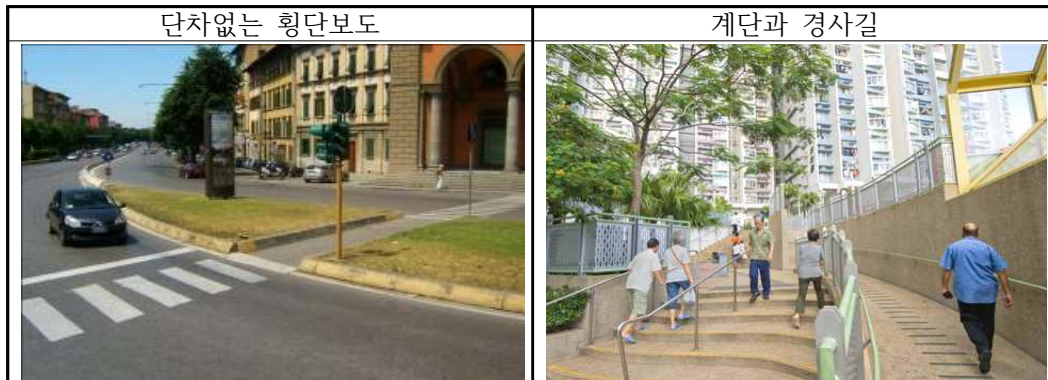
□ 이 슈 5 버스에 타고 내리기 불편하고, 차량이 많아 위험하여 외출하기가 어렵다.

□ 전략과제 5 대중교통 무장애화(Barrier-Free)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고령자들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에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디자인된 현재의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하도, 계단, 차도와 보도의 단차 등은 보행이나 휠체어 등의 이용에 장애가 됨.
- 신체적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교통기반 시설에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음.
- 버스 승강대를 낮추고,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바꾸는 등 대중교통 무장애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함.
-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자동보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시설을 설치하고, 계단과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며, 넓은 의자 등을 갖추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함.
- 버스정류장에 벤치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노약자가 버스를 기다릴 때 쾌적한 휴식기능을 제공해야 함.
-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보행자도로, 가로변 접근 도로, 횡단보도를 개선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는

등의 설계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림 4-5〉 무장애(barrier-free)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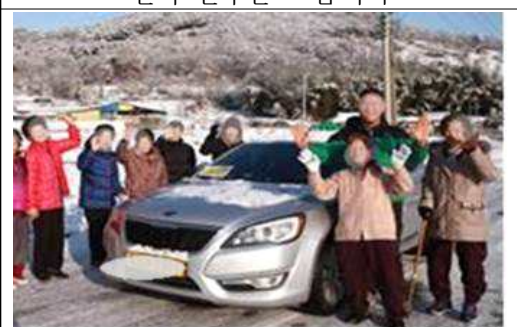
자료: 최영국 외(2011), 128쪽

□ 이 슈 6 택시비가 비싸 이용하기에 부담스럽다.

□ 전략과제 6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경북 상주시와 전남 강진군의 100원 희망택시, 전북 완주군 으뜸택시, 충북 옥천군 다람쥐택시 등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버스이용객수가 도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나 노선에 따른 배차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산간지역 마을 등 버스노선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림 4-6〉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

경북 상주시 100원 희망택시	전남 강진군 100원 택시
	
경북일보(2015.04.02.) 전북 완주군 으뜸택시	매일신문(2015.04.02.) 충북 옥천군 다람쥐택시
	
일요신문(2015.04.01.)	한국일보(2015.11.01)

2.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가. 배경

- 여가문화활동과 관련된 ‘사회참여’와 시민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취업을 포괄하는 ‘시민참여 및 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에는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음.
- 우선, 사회참여 영역과 관련하여 기초자료와 핵심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주도에에는 다양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노인여가 시설이 존재하며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음.
- 이렇듯 다양한 여가시설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지역별로 시설 접근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간의 협소와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음.
- 노인의 지역사회활동은 여가 및 문화활동이나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의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노인의 욕구에 상응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내용 측면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노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화 전략이 부족한 상태임.
- 실제 대부분의 노인이 TV시청을 주요한 여가문화활동으로 꼽았다는 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노인들의 지역사회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주 노인들은 친구 및 지역사회관계 만족도와 주민 간 결속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이웃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해야 함.
- 고령 노인이 많고, 고령화될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고령 노인이나 비교적 숫자가 적은 남성 노인이 지역사회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 내 각종 행사와 경조사 참여는 제주 노인의 지역사회활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데,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지원 사항으로써 지역 내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측면 이 외에 다른 세대의 인식 변화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으로서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사회참여’와 관련된 주요 목적은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환경 조성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시민참여 및 일자리 영역과 관련하여, 기초자료와 핵심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노인들은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근로 의지도 높은 편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 노인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가족문화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체로 농업 분야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생활환경이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보다 다양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보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실정임.
-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고령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의 근로 환경이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맞게 함께 변화하고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는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률 향상에 매우 중요함.

- 그러므로 취업과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노인들의 취업이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노인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노인들은 복잡한 행정체계 속에서 생활상의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선하는 방법과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함.
-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와 개입 활동의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내용들로부터 ‘시민참여 및 일자리’ 내용의 주요 목적은 노인 취업 지원 및 근로 환경 개선과 노인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의 기회 마련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음.

나. 이슈 및 전략과제

연번	고령친화도 진단(ISSUE)	전략과제(INITIATIVE)
사회참여 기본 환경 조성		
1	기존 노인여가시설은 접근성과 충분한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 내 기존 시설 확보 등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2	여가프로그램에 있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다양화 전략이 부족하다.	마을 내 이웃 관계 중심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3	소외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사회참여활동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노인과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노인 취업 지원 및 근로 환경 개선		
4	노인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영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5	농어업 종사자 이 외에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여 노인 취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6	많은 노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만, 근로 환경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7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기회를 찾기 어렵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8	노인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부여되지 않는다.	노인이 고령친화도시정책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1) 사회참여 기본 환경 조성

☐ 이 슈 1 기존 노인여가시설은 접근성과 충분한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전략과제 1 지역 내 기존 시설 확보 등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 다양한 노인여가시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수요를 감당할만큼 충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 하지만 많은 시설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됨.
- 노인여가시설을 별도로 설립하는 물리적인 양적 시설 확충은 향후 예상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세대 구분 없는 통합적 운영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재고해보아야 할 부분임.
- 그러므로 기존의 일반 여가시설들을 노인들도 함께 어울려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역 내 체육시설,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원, 미술관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에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그러한 안목에 기반하여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방안의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³⁾에 의거하여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여가시설의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시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또한,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통해서 제주의 모든 지역 노인들이 균일한 질적 수준을 갖춘 충분한 여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 산북지역 그리고 농촌형과 도시형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하여야 함.
- 아울러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실버존(Silver Zone)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
- 이 슈 2 여가프로그램에 있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다양화 전략이 부족하다.
 - 전략과제 2 마을 내 이웃 관계 중심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 노인여가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는 높으나 프로그램 내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지적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는 실제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즐기는 여가활동은 TV시청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수동적인 여가활동 방식에 익숙해있음을 알 수 있음.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사회참여 영역은 노인이 집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교류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구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며 구성하는 전략과제에서는 노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노인들이 익숙하게 참여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주지역 노인들도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도 수동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관계 만족도와 마을주민 결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노인복지관을 통해 정형화된 여가프로그램의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프로그램이나 마을주민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이 슈 3 소외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 집단의 사회참여활동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전략과제 3 고령 노인과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 활동적인 노인이 더욱 활동적으로 사회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노인에 대한 접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함.
- 어느 사회나 소외된 집단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집단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소외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접근하여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활동을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돌봄 체계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제주지역에서는 자립생활을 선호하여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령 노인이 소외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한편, 여성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므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의 소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남성 노인 또한 소외될 수 있는 집단군으로 보아야 함.
-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기준 설정을 통해 소외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일반적 인구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고령 노인과 남성 노인으로 보고, 고령 노인이나 남성노인이 지역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의 정기적인 제공 방안을 사회참여활동 다양한 방안의 주요 영역으로서 제안함.

3) 노인 취업 지원 및 근로 환경 개선

-
- ☐ 이 슈 4 노인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영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 ☐ 전략과제 4 제주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관련하여 노년기 경제활동은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은 노인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함.

- 제주지역도 1차 산업 종사자 이 외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갖춘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은 은퇴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통적인 1차 산업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인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일자리 영역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원해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귀농귀촌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착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서 노인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노인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낸다면 실제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을 위해서 제주도 산업 특성과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노인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 영역을 발굴하는 제주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노인 적합 직종 개발은 직종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종을 어떻게 육성하고 노인의 취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함.

□ 이 슈 5 농어업 종사자 이외에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 전략과제 5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노인 취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일곱 번째 이슈에서는 일자리나 사회공헌 정보 찾기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정보 제공을 전략과제로 제시하는데 반하여, 이 내용은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임.
-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춘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1차 산업 종사자가 아니라면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은퇴 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 근거하여, 노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 알선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기존 노인일자리사업(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지원이 아닌 노인의 민간 영역 취업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논의하고자 함.
-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주요사업 내용에는 노인인력 채용을 원하는 민간업체 발굴과 취업 알선 그리고 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민간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노인인력이 효율적으로 양성되어 노인인력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슈 6 많은 노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만, 근로 환경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

☐ 전략과제 6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제주지역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며 독립적 노년 생활 문화의 영향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국내 전체 통계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제주 노인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노인이 되면 노화로 인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므로 지금까지 일해왔던 환경이 노인의 특성에 적절치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음.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노후의 경제활동 욕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노인들의 근로 환경의 적절성에 대한 접근도 중요한 문제임.
- 노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근로 환경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외국에서는 노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개선과 고용주 및 동료의 태도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여 노인인력 채용 업체에 배포하는 등 근로 환경 개선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령친화적인 근로 환경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배포하거나, 노인인력으로 구성된 근로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노인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할 수 있음.

4) 노인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
- ☐ 이 슈 7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기회를 찾기 어렵다.
 - ☐ 전략과제 7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 노인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때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도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처를 찾기도 매우 어렵고 이러한 경향은 고령 노인일수록 더욱 강해짐.
-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 확보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음.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서비스는 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 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아무리 좋은 정책에 의한 서비스라도 노인 당사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서비스 이용률이 향상될 수 없음.
- 그러한 차원에서 일자리 및 사회공헌 정보 제공 서비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전달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최근에는 통합적 정보 체계를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것으로 인식 하지만, 그것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때에는 전화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방식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아직까지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문자 정보 전달은 노인의 감각기능 및 인지기능에 적절치 않기 때문임.

☐ 이 슈 8 노인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부여되지 않는다.

☐ 전략과제 8 노인이 고령친화도시정책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노인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이 직접 느낀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될 수 있어야 함.

- 노인의 생활상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에서부터 정책 제안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 제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활동으로서 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노인들은 대부분 적절하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는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방법을 알기 쉽게 공지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개별 민간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노인의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과정에서 노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지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전략과제로서 구성되어야 함.

3.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가. 배경

1) 인구학적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15년에 고령사회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43,334명(8.0%), 2010년에 69,641명(12.2%), 2014년에 82,411명(13.7%)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8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2000년에 3,449명, 2010년에 6,549명, 2014년 7,953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제주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1인 가구는 14,3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1/3이나 되는 수치임. 치매노인의 추정치는 전체 노인의 9.18%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에도 약 8,000명 정도로 추정이 가능함.

2) 법률적 배경

- 노인과 관련된 존중과 사회통합관련 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 여가 복지시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5조의 2(노후설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등이 있음.
-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관련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이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관련법은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있음.

3) 조사결과

- 첫째, 사회 존중과 관련한 노인의 의견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낌.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외출 시 공영버스 기사들이 탑승하자마자 출발 하는 것 등 불친절한 언행에서 크게 느낌. 또한 노인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충고를 할 경우 오히려 청소년들이 대드는 경우도 있음.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을 위한 봉사단체들도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사회통합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인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장소·기회·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음.
- 둘째,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측면에서 적절성과 정확성, 충분성에 대하여 불만이 제기됨. 노인들에게 버스 환승제도 도입에 대한 정보, 복지관 신축 등과 같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음.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청각의 노화로 인하여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의 홍보 책임자와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셋째, 지역사회서비스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때로는 60세 이상 노인과 70세 이상 노인의 세대 갈등이 유발되기도 함.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음.

나. 이슈 및 전략과제

	고령친화도 진단(ISSUE)	전략과제(INITIATIVE)
고령자의 존중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체계 구축		
1	노인에 대한 존중심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가 부족하다.	노인의 존중과 배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2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3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관련 활동이 미미하다.	젊은 세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 수월성과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4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정보, 소식의 유형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으로 소외감을 해소한다.
5	노후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서비스의 격차 해소		
6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7	복지관/경로당 이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갈등을 유발한다.	복지관/경로당 이용 노인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연령 적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장기요양보호 수발자의 부담 완화		
8	와상노인의 이동이 어려워 병원진료 등 외출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침대가 설치된 차량의 확대설치 및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대한다.
9	환자의 상태와 수발 기간에 따른 가족 수발자의 물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발기술 교육, 수발 기간에 따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 고령자의 존중과 지역사회통합 활동 위한 체계 구축

☐ 이 슈 1 노인에 대한 존중심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가 부족하다.

☐ 전략과제 1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떨어지면서 노인의 가치가 저하되고, 핵가족화나 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의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심지어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그러나 젊은 세대 일방의 존중이나 배려만을 촉구하기 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노력이 필요함. 즉,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모두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살아온 삶과 그 속에 배어있는 지혜를 존중하고, 노화로 인한 다양한 기능의 쇠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쌍방의 노력을 통해서야만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지역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기사들에게 노인의 특성과 교통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존중과 배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누구나 이용하는 대형마트 또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 또는 상점에는 비즈니스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노인이 상품 구매 시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게 함.
- 공공기관 또는 은행 등 생활 관련 이용시설 공무원과 종사자에게는 노인응대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하여 노인이 존중 및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심리적인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 슈 2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 전략과제 2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노인공경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다중매체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 세대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 때문에 대중 매체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 TV에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하여 자연스럽게 노인의 매력적인 모습과 활동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또한 광고전단이나 포스터에 노인의 멋진 모습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음. 지역사회에 공헌한 노인에 대한 포상 및 홍보는 자연스럽게 노인공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노인이 그간의 수동 및 수혜자에서 능동자,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능 나눔,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특히, 교육 또는 문화 관련 재능 나눔 또는 봉사활동의 장려는 품격 있는 노인으로의 인식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전통놀이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노인지역사회 참여활동과 연계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 될 수 있음.
- 지자체의 노인관련 중요한 정책 개발 또는 의사결정에 노인이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노인 공경의 표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정책 개발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운홀 미팅방법⁴⁾ 등을 활용하여 특정 노인이 아닌 다수의 노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함은 매우 중요함.

□ 이 슈 3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관련 활동이 미미하다.

□ 전략과제 3 젊은 세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일원으로부터 이탈하여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됨. 때문에 건전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노인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영위가 가능함.
- 노인이 젊은 세대와 통합을 이루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임.
- 그러나 지역사회통합 활동은 제도나 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인 합의보다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배제 또는 차별이 불식될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단계별 접근이 가능함. 1단계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참여하는 형태(공급자 중심)가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는 노인들이 기획, 주제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용자 중심)에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1단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사회관련 교육, 고령화와 고령사회 관련교육 등을 노인이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임.

4)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 정책결정권자 또는 선거입후보자가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회의 (출처 : 두산백과)

- 2단계에서는 노인들이 스스로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지역사회위원회 또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여 공존의 공동체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접근 수월성 제고

□ 이 슈 4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 전략과제 4 정보, 소식의 유형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으로 소외감을 해소한다.

- 노인에게 소통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며 새로운 역할 수행이 부여되는 중요 요소임.
- 지역사회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기초적인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그간 노인세대들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의사소통 유형 및 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 및 유형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심지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특히 IT기술 기반의 의사소통은 복잡한 기능과 조작 기술을 요하게 되어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음.
- 또한 신체기능의 저하로 시각, 청각능력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시청각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노인이 알아보기 쉽게

글자의 크기, TV자막 크기, 글자의 색을 크고 선명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각적으로는 노인이 알아듣기에 부담 없는 속도와 크기, 익숙한 단어의 활용 등을 통해 노인세대의 이해를 도모해야 함.

- 자동화/전자기기 메뉴얼은 젊은 세대 위주로 만들어져 설명이 길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노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므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편성하거나, 보다 쉬운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초기노인과 고령노인과의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 수준이 다름. 노인의 연령대별 맞춤형 활용 메뉴얼 개발과 교육이 필요함.

☐ 이 슈 5 노후생활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 전략과제 5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 노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의 습득은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특히, 지자체와 마을 단위에서 공지하는 사항에 대한 생활 정보는 노인의 생활에 필수적임.
- 노인에게 정보전달은 전화나 매체를 통하기보다는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합함. 설명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어 노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노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이·미용실과 슈퍼마켓 등과 같이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생활정보지를 비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용실과 슈퍼마켓 직원이 정보를 구두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활동하도록 함.

- 개별 생활정보 제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년에 한 번은 생활 정보를 패키지로 만들어 보급함.
- 노인들이 즐겨보는 지역 TV시청 프로그램 시간대에 자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음.

3)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서비스의 격차 해소

-
- ☐ 이 슈 6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 ☐ 전략과제 6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

- 노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함. 또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질병에 대한 효과적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함.
- 노인들에게 가장 관심과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건강/질병관련 사항 일 것임. 그러나 제도적 · 행정적인 미비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격차와 지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격차는 항상 존재함.
-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 찾아가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노인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찾아가기에 수월한 교통 또는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노인의 질병과 사고 유형별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건강 염려증의 완화가 가능하며, 재가노인복지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함. 특히, 농한기 동안 접근이 용이한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우 만족도가 높을 것임.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높은 편이나,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요양시설 거주자 중심의 요양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흑한기와 흑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흑한기와 흑서기에 생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노인의 불안감 해소에 중요함.

☐ 이 슈 7 노인을 위한 복지관/경로당 이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갈등을 유발한다.

☐ 전략과제 7 노인을 위한 복지관/경로당 이용 노인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연령 적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노인을 위한 복지관과 경로당은 노인의 중요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공동체로서의 정보교환, 체력단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노인여가 시설로 활동적인 노인여가문화의 창출의 장이 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시설임.
-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이용자가 일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이용자 욕구, 특히 연령대에 맞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연령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하여 경로당은 복지관에 비하여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아 프로그램 도입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때문에 교육보다는

건강, 문화, 예술 영역의 프로그램 확대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은 기존의 교육을 통하여 훈련된 노인들은 동아리 형태의 소 그룹으로 조직하여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공서 및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동아리 모임을 갖고 활동 하면 공간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함.
- 노인여가 시설인 복지관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함.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노인 여가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가칭) 재가노인여가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함.

4) 장기요양보호 수발가족의 부담 완화

-
- ☐ 이 슈 8 와상노인의 이동이 어려워 병원진료 등 외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 ☐ 전략과제 8 침대가 설치된 차량의 확대설치 및 수요자의 차량 이용 편의를 증대한다.
-

-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와상노인의 경우, 침대가 설치된 차량이 아니면 외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함. 복지센터나 장애인 지원차량 대부분이 휠체어 전용이기 때문에 와상환자는 이용할 수 없음.
- 와상환자가 병원진료 등의 이유로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병원에 소속된 구급차나 11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개인병원의 구급차는 이용비용이 매우 비싸고, 119 구급차량의 이용은 쉽지 않음.
- 더구나,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가족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기관 차량이나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은 대부분 휠체어용으로, 와상노인의 이동에는 적합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와상노인이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119 구급차의 경우에는 와상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하는 환자 및 수발자가 많지 않음. 또한, 응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와상환자와 수발가족들의 실태와 복지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침대차량의 증편을 통해 수요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슈 9 환자의 상태와 수발 기간에 따른 가족 수발자의 물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 전략과제 9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발기술 교육, 수발 기간에 따른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 가족 수발자들은 노인 환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 특히 수발 초기의 경우 기존의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고 수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노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수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가족구성원에 대해 불만이 생겨 강한 스트레스를 호소함.
- 또한, 수발자가 여성이고 거동이 불편한 남성을 돌보는 경우 환자의 체위를 바꾸거나 수발을 드는 데 많은 육체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장기요양보호를 담당하는 가족 수발자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자신에게 닥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짜증이나 분노 등을 타인에게 표출하기도 함.
- 수발자와 환자 본인의 스트레스는 수발의 질과 더불어 수발자와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환자의 질환 종류나 수발 기간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및 향후 계획

1. 단계별 추진전략

- 특정 국가 혹은 사회가 선진국가(사회)로 진입하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이미 100여 년 전 부터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여 현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도 40여 년이 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어서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구체적 대응 전략들을 실행해 오고 있음.
- 이처럼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고령사회(혹은 초고령사회) 문제는 심도있게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현안 문제로 부각되었음.
-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화와 고령사회(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 국내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고령사회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특히 고령친화도시 문제는 국내에서 보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주축이 되어 각국의 도시들로 하여금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문제는 물리적 생활환경 변화(도로, 교통, 건물구조 등)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노동, 고용, 교육, 소통, 사회통합 등) 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단계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화 대응 단계별 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마련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⁵⁾과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바탕을 둘 것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상반기에 「2016-2020,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제6조)에 바탕을 두어 추진 될 것임.
-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계획 수립에 그치거나 혹은 정책사업의 일회적 완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전략을 잘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에 따라 목표 달성을 차별화할 것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전략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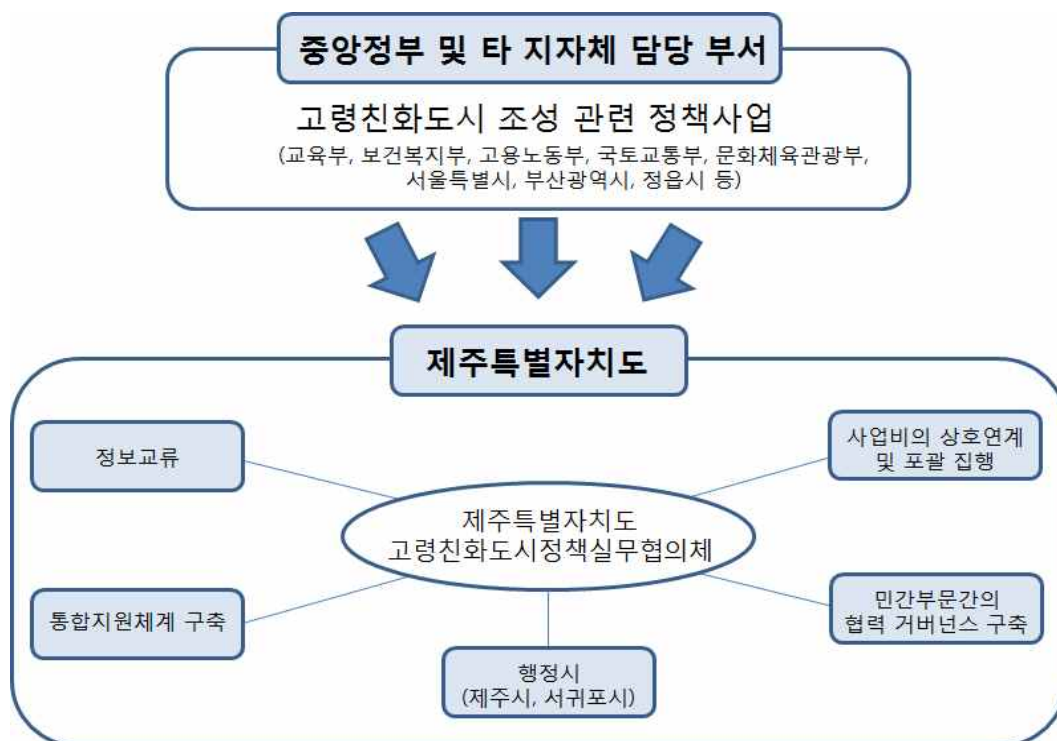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들은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2016-2020)」을 수립할 예정임.

가. 제1단계 (2016~2020년, 고령사회 진입 단계)

- 제1단계('16~'20)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전략목표는 당당한 노화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단계 핵심 전략과제는 물리적·사회경제적 인프라 기반 구축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친화도시의 제1단계 핵심과제가 동력을 받아서 추진될 때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 담보될 수 있음.
-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물리적·사회경제적 인프라 기반 구축 과정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노인단체(기관), 노인복지기관, 보건 의료기관, 그리고 다양한 NGO 등 간의 협의와 협력이 요구됨. 왜냐하면 행정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령친화형 지역사회로 재편하려고 하여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행정만 나서는 정책 실패로 나타나기 십상이기 때문임.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단계 물리적·사회경제적 인프라 기반 구축 과정에는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의 토대를 구축하여 고령친화형 지역사회의 가치와 의미를 창출 및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제1단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는 행정이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워서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의 실무 부서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다시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갈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도민들에게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담당 부서들 간의 (가칭) 고령친화도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제주에 앞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 특히 서울특별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물리적·사회경제적 인프라 기반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5-1〉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도



나. 제2단계 (2021~2025년, 고령사회 확장 단계)

- 제2단계('21~'25)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전략목표는 민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일임(그림 5-2 참고).

- 제1단계에서는 특별자치도 행정기관이 선도하는 추진체계 방식이라면 제2단계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두고 범도민사회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임.
- 이러한 기반위에서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자발성과 참여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완성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접근 방식은 민간부문(도민, 노인, 노인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NGO 등)이 주로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제1단계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행정에서 담당하여 추진할 사업들도 있지만 제2단계에서는 행정은 주로 지원하고 대신에 민간부문이 자발적 참여와 책임을 가져 추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 기관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들 기관들은 입법과 교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제도 개선과 교육에 대한 지원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 특히 민간부문 중 고령자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시민사회 부문도 참여시켜 사회적 약자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임.
- 고령자를 포함한 도민들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서 소위 '제주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문화 만들기가 필요함.
- 제2단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접근 방식과 거버넌스 체계도가 <그림 5-3>에 나타나 있음.

〈그림 5-2〉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체계도



다. 제3단계 (2026~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 단계)

- 제3단계('26~'30)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전략목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령친화도시를 확립하는 단계임.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년 동안의 고령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이 가시화 될 때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임. 이에 따라 도민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제3단계는 전국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고, 더 나아가 고령친화도시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초고령사회에서는 국가나 사회 자체가 고령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이므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를 넘어선 다른 영역들과의 연계 속에서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그림 5-3〉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 단계별 도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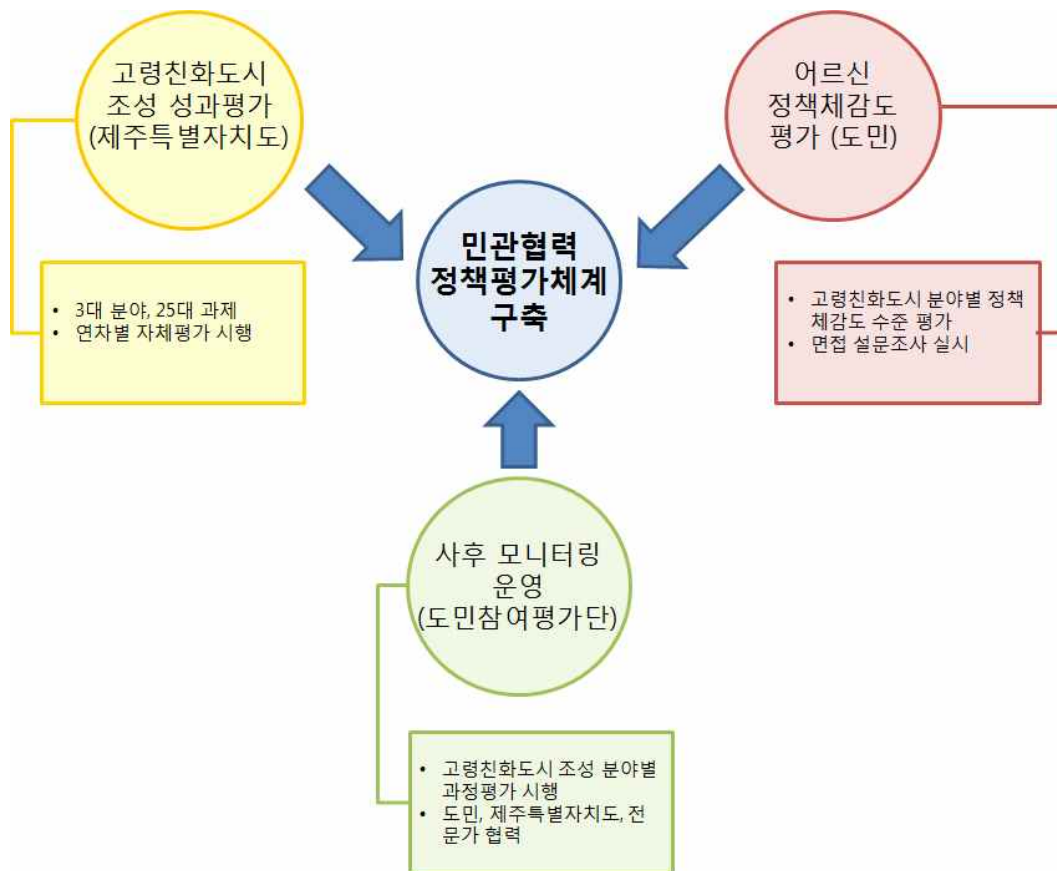
2.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4년의 핵심사업은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도시진단 기본틀을 적용하여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별로 실시한 고령친화도 진단을 시행하였음.
- 2015년에는 2014년의 제주지역의 고령친화도 진단에 기초하여 8대 분야별로 총 23개 이슈와 23개 전략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

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음.

- 2016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4개년('17~'20)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예정임. 또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행계획 준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수립할 예정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 단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도시 및 교통계획, 노인고용 및 여가 등 다양한 정책사업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의 연계성이 없었음.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한편 기존의 평가체계는 단순히 사업평가지표만 있어 평가의 현실 적합성과 효과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도민 밀착형 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음.
- 따라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도민참여형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도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도민참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도민평가단 활동의 결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로 도민과 노인들이 고령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평가체계는 <그림 5-4>에 나타남.

〈그림 5-4〉 제주 고령친화도시 평가체계



제6장. 결 론

- 본 장에서는 4장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들을 요약 및 정리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① 안전하고 쾌적한 외부환경

-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전용주택 공급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배려와 안전의 안전과 배려를 고려하여 전용주택 공급과 주택개발 지원 확대 등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고령자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언제든지 안전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및 방법 활동의 강화 등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② 교통 환경 및 서비스 구축

-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이동 체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대중교통 무장애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에 의한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필요함.
 -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택시 서비스 등) 체계를 마련함.

③ 사회참여의 기본 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와 선진화

- 지역사회 내 기존의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및 인프라 확충 필요함.
- 저렴한 노인전용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고령자들이 사회참여 기회와 접

근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사회 내에 이웃관계를 중요시 하여 고독감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성별, 연령, 지역, 전직 직업커리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가족 및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④ 노인취업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 제주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보급 필요
- 노인고용 촉진 및 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가칭)제주고령자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 근로환경 개선책 마련 필요함.

⑤ 노인의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 노인들이 가진 재능, 기술 그리고 경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정보의 통합화 및 체계화가 필요함.
-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실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됨.

⑥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역사회통합 활동위한 체계 구축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 존경, 그리고 공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
-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 간 통합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함.

⑦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고령자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학습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후생활의 건강, 생활, 거주, 자산관리, 상속 등에 대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고령자 맞춤 정보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⑧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 노인들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지원함.
- 노인들의 특성별, 지역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제주지역 읍·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함.
- 읍·면지역 권역별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특히 보건소 기능의 재편화가 요구됨.
-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제주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함.

⑨ 장기요양보호 수발자의 부담 완화와 지원체계 구축

- 고령자의 부양 혹은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혹은 재가복지 요양보호사를 위해 환자 맞춤형 수발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고령자 부양(특히 치매노인)을 책임지어 가정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특히 외상노인의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차량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9개 분야의 전략과제들은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특성별로 분류하여 체계성, 체계성 그리고 종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상 제시된 전략과제와 이슈 내용들은 <표 6-1>에 제시되어 있음.

<표 6-1>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슈 및 전략과제 요약

외부환경, 주거환경 및 교통		
	고령친화도 진단 (ISSUE)	전략과제(INITIATIVE)
안전하고 쾌적한 고령친화적(age-friendly) 주거환경 구현		
1	주택 내에서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낙상사고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을 확대한다.
2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 고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거의 없다.	고령자를 배려한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조성		
3	우리 동네는 방범요원이나 경찰의 수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다.	주·야간 언제든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4	집 가까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층을 배려한 교통 환경 및 서비스 구축		
5	버스타고 내리기가 불편하고, 차량이 많아 위험하여 외출하기가 어렵다.	대중교통 무장애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6	택시비가 비싸 이용하기에 부담스럽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표 6-1. 계속〉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슈 및 전략과제 요약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고령친화도 진단 (ISSUE)	전략과제(INITIATIVE)
사회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1	여가프로그램에 있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다양화 전략이 부족하다.	마을 내 이웃 관계 중심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2	소외 가능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사회 참여활동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령 노인과 남성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3	사회적으로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여러 세대가 함께 하며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노인 취업 지원 및 근로 환경 개선		
4	노인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영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5	농어업 종사자 이 외에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여 노인 취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6	많은 노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만, 근로 환경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7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기회를 찾기 어렵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공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8	노인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부여되지 않는다.	노인이 고령친화도시정책 구성에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표 6-1. 계속〉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슈 및 전략과제 요약

존중, 사회통합,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		
	고령친화도 진단(ISSUE)	전략과제(INITIATIVE)
고령자의 존중과 지역사회통합 활동 위한 체계 구축		
1	노인에 대한 존중심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려가 부족하다.	노인의 존중과 배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2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기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부족하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 공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3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관련 활동이 미미하다.	젊은 세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 수월성과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4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 등에 대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정보, 소식의 유형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으로 소외감을 해소한다.
5	지속거주를 위한 다양한 노후 생활 필요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지속거주에 필요한 다양한 노후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여가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서비스의 격차 해소		
6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7	복지관/경로당 이용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며,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갈등을 유발한다.	복지관/경로당 이용 노인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연령 적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표 6-1. 계속〉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슈 및 전략과제 요약

장기요양보호 수발자의 부담 완화		
8	와상노인의 이동이 어려워 병원진료 등 외출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침대가 설치된 차량의 확대설치 및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대한다.
9	환자의 상태와 수발 기간에 따른 가족 수발자의 물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발기술 교육, 수발 기간에 따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참고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경북일보(2015.04.02)

국토연구원(2011),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매일신문(2015.04.02)

서울시복지재단(2011),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이철수(2013), 「사회복지학사전」, 해민북스

일요신문(2015.04.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지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연구원(2014),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월별 주민등록인구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통계청(2014),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행정자치부(2014),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노인실태조사」

한국일보(2015.11.01.)

헤럴드경제(2011.07.07.)

<http://www.scbokjatown.or.kr/>(서천에메니티복지마을)

<http://kostat.go.kr/> (통계청)

<http://www.jeu.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projecthow.info>

<http://www.interaction-design.org>

부록 1.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간담회

-참가자 현황-

	거주지	연령	학력	월소득	생활 수준	성별
1	서귀포시 동홍동	60대	고등학교	60만원 미만	중	남
2	서귀포시 서호동	60대	고등학교	60~150만원	중	여
3	서귀포시 하효동	60대	전문대 이상	300만원 이상	중	남
4	서귀포시 동홍동	60대	중학교	300만원 이상	중	남
5	서귀포시 천지동	60대	전문대 이상	300만원 이상	중	남
6	서귀포시 동홍동	60대	고등학교	60~150만원	중	여
7	서귀포시 서귀동	60대	고등학교	60만원 미만	중	여
8	서귀포시 서귀동	60대	전문대 이상	60만원 미만	중	남
9	서귀포시 월평동	60대	전문대 이상	60~150만원	중	여
10	서귀포시 동홍동	80대	고등학교	60만원 미만	하	남
11	서귀포시 동홍동	70대	초등학교	무응답	무응답	남
12	서귀포시	8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하	여
13	서귀포시 동홍동	8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하	여
14	서귀포시 동홍동	70대	고등학교	60만원 미만	하	여
15	서귀포시 동홍동	70대	고등학교	60만원 미만	하	남
16	서귀포시 중앙동	70대	초등학교	150~300만원	하	여
17	서귀포시 동홍동	70대	초등학교	60만원미만	하	남
18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0대	고등학교	20만원	무응답	남
19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0대	초등학교	35만원	무응답	여

20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0대	중 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남
2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여
22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0대	중 학교	150~300만원	무응답	여
23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8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여
24	제주시 아라동	80대	중 학교	60만원 미만	하	남
25	제주시 아라동	6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하	여
26	제주시 아라동	80대	무학	60만원 미만	하	여
27	제주시 아라동	70대	중 학교	60만원 미만	하	남
28	제주시 아라동	6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여
29	제주시 아라동	90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여
30	제주시 아라동	80대	중 학교	연3~400만원	무응답	남
31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6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남
32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7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여
33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6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여
34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80대	초등학교	60만원 미만	무응답	여
35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60대	중 학교	땅13000평	무응답	남
36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70대	중 학교	연700만원. 땅이 있음.	무응답	남
37	제주시 노형동	60대	전문대 이상	150~300만원	중	남
38	제주시 연동	70대	고등학교	150~300만원	중	여
39	제주시 연동	70대	초등학교	60~150만원	하	여
40	제주시 노형동	70대	고등학교	150~300만원	중	남
41	제주시 연동	70대	초등학교	노령연금, 시니어클럽, 어린이집보조	무응답	여
42	제주시 노형동	70대	고등학교	150~300만원	중	남
43	제주시 노형동	60대	전문대 이상	150~300만원	중	여

연 구 진

연구책임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서연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공동연구	고수희	평안요양원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임병우	성결대학교 교수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현인숙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황은주	미국버지니아텍 주립대학교 교수

2015-01
고령사회연구

제주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일 | 2016년 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한미기획출판 (064) 753-7891

ISBN : 978-89-6010-457-0 93330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